

경북의사회가 만들어가는 따뜻한 이야기

경북의사회

2014 New Year Vol.51



경상북도의사회

Gyeongsangbukdo Medical Association

2013년도

의사회비 납부 요청 및 신용카드 결제 안내

2013년도 의사회비는 의사의 전문성 및 자율성을 확보하고 정책단체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이미지 고양과 회원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님께서 납부해 주시는 소중한 회비는 의권 신장과 더불어 본회의 효율적인 사업추진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쓰여지고 있으며, 의사의 중추단체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건강지킴이 역할 수행은 물론 단합된 회세와 전문성을 확보하여 정책단체로서의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의사단체의 존재성을 되새겨 회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용카드 결제로도 회비납부가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신고대상

-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본회 소속회원)

납부방법

- 계좌입금 : 농협 301-0104-6600-81 경상북도의회
- 카드결제
홈페이지(<http://www.igbma.or.kr>) 접속 → 회비납부 클릭(화면 우측 배너) → 해당금액 결제

의협회비 면제 및 감면 대상

- 회비면제 회원
 - 만70세이상 회원(1943년 5월 1일 이전 출생자) : 단, 경상북도 의사회비는 '가 회원' 250,000원, '나 회원' 125,000원 납부
 - 질병, 신체장애, 해외연수 등의 사유로 회계연도중 12개월 이상 진료활동이 중단된 상태에 있는 회원
 - 공직 또는 봉직의사로서 정년퇴임 후 경제활동이 없는 회원
 - 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타 분야에 전업한 회원
 - 기타 사유로 생계가 극히 곤란함이 인정되어 면제를 요청하는 회원
 - ※ 회비면제회원 신청 : 해당회원의 증빙자료 첨부 신청
- 회비 감면회원
 - 개원회원('가'회원)중 '나'회원회비 적용대상 : 471,000원 징수
 - 만65세이상 회원 : 1943년 5월 1일 ~ 1948년 4월 30일 주민등록표상 기준

회비내역

- 회계기간 : 2013. 4. 1 ~ 2014. 3. 31

구 분	가 회원		나 회원	다 회원	라 회원	휴직회원	비 고
	개원회원	감면회원	근무회원	전공의회원	공보의회원		
대한의사협회비	310,000	231,000	231,000	135,000	106,000	135,000	연회비·구독료·연구소 회비 학술대회분담금·약법대처기금
경북도의사회비	250,000	250,000	125,000	75,000	-	-	
계	560,000	481,000	356,000	210,000	106,000	135,000	



발행인 정능수
 편집인 김종영, 김영태
 발행일 2014년 1월 27일
 발행처 경상북도의사회
 702-824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로 82
 TEL. (053)941-7785 FAX. (053)941-5557
 홈페이지 www.igbm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igbma
 편집위원장 김종영
 편집위원 이인태, 이창윤, 김대영, 김광렬, 김영태
 제작처 선진매드
 대구광역시 서구 당산로 88길 24
 TEL. (053)555-3336 FAX. (053)556-3273

- 04 **신년사**
 갑오년 새해에도 꾸준히 소통하고 희망을 나누시다 · 정능수
 그 느낌 아니까 · 김광만
 올바른 의료제도가 세워지는 원년이 되길 · 노한규
 하나 된 의협, 원년이 되기를 · 변영우
- 08 **특별기고**
 희망을 진료하는 경북의사회 회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 김희국
- 09 **포토뉴스**
 제28회 경북·전북의사회 친선행사
 제2회 사회공헌 및 의료봉사 활동 기금 마련 골프대회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2013 전국 의사결기대회
- 13 **회무소식**
- 27 **회무단신**
- 35 **공지사항**
 상호공제 및 의료배상공제 가입안내
 제5회 경상북도의사회 학술상 및 봉사상 공모
 약학정보원 불법개인건강정보 습득 및 유출사건에 대한 단체소송 참여인 모집
- 38 **회원동정·의료기관 개원현황**
- 39 **분회 및 병원소식**
- 44 **추모사**
 이병채(李秉琛) 회장님 영전에 · 신은식
- 46 **의학 및 건강칼럼**
 편두통성 현훈의 임상양상과 감별진단 · 최호석
- 49 **문화칼럼**
 내려놓고 베풀 것인가? 움켜쥐고 지킬 것인가? · 유정우
- 52 **회원문예**
 수 필 _ 랑땡(Langtang) 기슭에서 · 이종규
 독도수호 결기대회를 진행하며 · 이덕영
 인연(因緣) · 최한욱
 참관기 _ 독도에서 변산반도까지 · 정만진
 부안에서의 제28회 경·전북의사회 친선 교류행사를
 기억하며 · 이상기

주요연중 행사일정

2013. 4. 7	제41회 보건의 날 기념식	2013. 10. 13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
2013. 4. 28	의협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	2013. 11. 3	2013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2013. 5. 9	제49호 경북의사회보 봄호 발간	2013. 12. 15	전국 의사결기대회
2013. 5. 25~26	제35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춘계학술대회, 친선의 밤, 경북의학제)	2013. 12.	연말 복지시설 방문
2013. 5.	2013년도 회원정기신고	2013. 12. 20	2013년도 회원명부 발간
2013. 7. 23~28	해외의료봉사(캄보디아 프놈펜)	2014. 1. 11~12	전국 의사 총파업 출정식
2013. 8. 30	제50호 경북의사회보 여름호 발간	2014. 1. 27	제51호 경북의사회보 신년호 발간
2013. 9. 8	의료봉사 기금마련 골프대회	2014. 2. 22	2013년도 전체이사회
2013. 9. 28~29	경북·전북의사회 친선행사	2014. 3. 12	2013년도 회무감사
		2014. 3. 29	분회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

갑오년 새해에도 꾸준히 소통하고 희망을 나눕시다



존경하는 경상북도 의사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 청마의 해, 갑오년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60년마다 돌아오는 '청마(靑馬)'의 해로 청마는 역동성과 강인함, 행운과 성공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힘차게 질주하는 강인한 말처럼 언제나 승승장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희망과 기대로 시작했던 지난 한해도 우리 의료계는 실망과 고통으로 보냈습니다. 정부의 관치의료는 이제 그 한계를 넘어 의료계의 기본체계를 무너뜨리고 의사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의 실패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왜곡되어 가는 의료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모든 회원이 일치단결하여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부당함을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쩌면 지금보다도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더욱 험난할지도 모르지만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의사로서 현실을 외면하고 방관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의료계 상황으로 인해 매우 힘든 시기였지만 회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아낌없는 배려와 조언을 해 주신 모든 회원님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금까지 늘 그래 왔듯이 우리는 의료현장에서 묵

묵히 땀 흘리며 국민의 건강과 의료계 발전을 위해 전력해 왔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또한 자랑스럽습니다.

또한, 우리 의료계는 회원님 한분 한분의 신뢰와 성원의 바탕 위에서 희망과 변화의 싹을 틔워 왔습니다. 만 아직도 풀어야 할 현안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갑오년 새해에도 회원들의 소통과 참여를 통한 화합, 기부문화와 봉사활동을 통한 존경받는 의사상 확립, 선도적 의료정책을 입안하여 국민건강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고 의료계가 승승장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원님의 적극적인 성원과 동참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경상북도의회는 회원님과 함께하고 지역사회, 나아가 해외에도 손길을 뻗어 많은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회원님과 지역사회가 함께 공존하고 지역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사회가 되고자 합니다. 그 중심에 경상북도의회가 있고, '300만 도민의 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에 매진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도 꾸준히 소통하고 희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대망의 갑오년 새해를 맞아 청마의 활기찬 기운을 받고 침체하여 있는 의료계가 다시 살아나서 흥겹고 신바람 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장 정 능 수

그느낌 아니까



올해도 어김없이 아침일찍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태우고 동해안으로 달렸습니다. 매년 집사람과 둘이서만 가다가 마침 올해는 시간이 맞아 딸내미가 동행했습니다. 해마다 차량이 조금씩 느는 것 같더니 올해는 세밀한과가 없어서인지 해안가 1km 이상 남기고 차가 밀려 멈춰섰습니다. 이러다가 일출을 놓칠 판입니다.

그래서 우회전하여 오히려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적당한 곳에 차를 주차하고 사람들이 몇몇 모여 있는 곳으로 올라갔더니 막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몇 년 째 새해 첫 해를 보러갔지만 올해만큼 날씨도 포근하고 바람 한 점 없는 날은 없었습니다. 메추리알만한 붉은 기운이 저 멀리 호미곶 해무 위로 빼꼼이 내밀었습니다. 딸내미가 아빠, 빨리 소원 빌어요~

가만 있자, 내 소원이 뭐였더라. 일단 올해도 가족들 건강하고 각자 하는 일 별일 없었으면 좋겠고 다음은 다음은... 우리 의료계가 좀 조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적인 분야는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사들이 영리병원과 원격진료를 반대하면 정부도 한번은 일단 멈춰 서서 우리말에 귀를 좀 기울여주면 좋겠습니다. 정작 직접 환자를 보고 책임질 사람들은 우리들이니까요.

가만 있자, 내 소원이 뭐였더라. 일단 올해도 가족들 건강하고 각자 하는 일 별일 없었으면 좋겠고 다음은 다음은... 우리 의료계가 좀 조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적인 분야는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사들이 영리병원과 원격진료를 반대하면 정부도 한번은 일단 멈춰 서서 우리말에 귀를 좀 기울여주면 좋겠습니다. 정작 직접 환자를 보고 책임질 사람들은 우리들이니까요.

최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이 인용해서 유명해진, 제프 존스란 기업가가 쓴 글 중에 이런 문단이 있습니다.

...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

전문적인 문제는 전문가에게 맡기면 됩니다. 약과 건강은 우리 의료인에게 맡겨놓으면 됩니다. 우리가 안된다고 그렇게 싫다고 하는 정책을 정부가 강제로 실시하면 문제가 더 많아집니다. 십수년전의 우리가 그토록 반대한 의약분업이 현재 돈만 먹는 거대한 공룡으로 변해있지 않습니까.

진료의 근본 개념조차 모호하게 만드는 원격진료. 동네의원만 합시다 라는 정부의 말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 것은 비록 저 혼자만의 느낌만은 아닐 겁니다. 영리병원, 즉 대형 사무장병원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동안 반복학습으로 습득한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그느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예 시작도 해서는 안됩니다.

그동안 갑오년 새해 첫해가 제법 떠올랐습니다. 올해가 청마의 해라죠. 병오는 적마, 무오는 황마, 경오는 백마, 임오는 흑마를 뜻한답니다. 올해는 특히 우리 의료계에 푸른 기상을 갖춘 청마의 기운이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과 가족분들, 올 일년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사회 대의원회 회장 김 광 만

국민과 의사, 정부 모두를 위하는 올바른 의료제도가 세워지는 원년이 되길



2014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니다.

모든 분들께 평안과 큰 축복
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건강보다, 그리고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많은 분들이 매
년 새해아침에 건강과 관련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계획한 대로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사
실도 이미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올해에는 건강
뿐 아니라 한 해의 모든 계획들이 꼭 실천되는 한 해
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올해에는 의사들도 크고 중요한 계획을 세웠습니
다. 다름 아닌, “올바른 의료제도를 바로 세운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좋은 점도 많이 있
지만, 외화내빈이라는 단어처럼 겉으로 많이 발전한
것처럼 보이면서도 또 다른 한편 속으로는 의료제도가
뒤로 많이 후퇴하였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의
기대가 커졌는데, 정부는 의사들로 하여금 최선의
의료를 제한하고 싸구려 의료를 강제 해 왔기 때문
입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나치게 낮은 수가를 지
급하는 바람에 환자분들이 오히려 많은 의료비 부담
을 져야 했습니다. 그 때문에 국민도 고통받고 의
사들도 남모르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정부는 최근 의료산업화라는 명목
으로 의료산업화를 꾀하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
니다. 오진의 가능성이 너무 높아 의사들이 받아들이
기 어려운 핸드폰 진료와 편법으로 영리병원을 허용
하는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등이 그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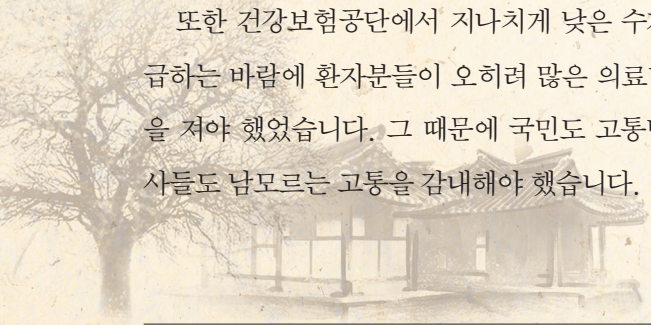
그 동안 의사들은 의료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기 보
다 환자에 대한 진료가 훨씬 더 중요했기에 당장 눈
앞의 환자 진료에 매진하느라 잘못된 의료제도를 정
부와 함께 방치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의료제도가 망가지고 왜곡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
지 않으려 합니다. 2014년을 국민과 의사 그리고 정
부 모두를 위하는 올바른 의료제도가 세워지는 원년
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 의사회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11만 의사들이 5천만 국민
의 든든한 건강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최선
을 다하고자 합니다.

2014년에

모든 분들이 건강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며
아픈 사람의 회복을 위해 애쓰시는 의사회원님들
을 비롯하여 숭고한 직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보건의
료인들께 크고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
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노 환 규



하나 된 의협, 원년이 되기를



존경하는 경상북도 의사회원 여러분! 2014년 갑오년 새해, 동해 영일만에 희망찬 태양이 붉게 떠올랐습니다. 힘차게 달리는 말의 해를 맞아 활력이 넘치고 희망이 샘솟는 한 해 되시고, 회원님들

의 진료실에 웃음꽃이 만발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우리 경북의사회 회원님들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협회무 수행과 의료계가 어려울 때는 항상 전국의 어느 시도사회보다 모범적이고 열정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은 자타가 인정하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경북의사회가 많은 상을 받은 것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선비사상과 나라가 어려울 때 언제나 앞장서 나라를 지켰던 호국, 화랑정신이 몸에 베여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 의료계는 쾅쾅 얼어붙어 있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는 현 정부는 정권 탄생의 공신이고, 우리나라 의료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켰으며, 국민건강을 지키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의사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등 잘못 된 의료제도와 의사 규제정책들을 봇물같이 쏟아 내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1천여 명의 경북회원님들을 비롯한 전국의 2만여 회원님들은 12월 15일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문화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싸늘한 얼음바닥에 앉아 의권쟁취의 뜨거운 열기와 울분을 뽐내었습니다.

이후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랜만에 의협 신년하례식에 참석하여 의정협의체 구성을 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협의체를 통하여 원격의료, 영리병원, 의료수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문제 등 현안 문제를 함께 논의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를 단언 할

수 없지만 과거와는 상당히 진전 된 자세로 여겨집니다. 이 협의체를 통하여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상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의협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총회 결의에 따라 공제조합을 설립하였고, 또 재정위기에 몰린 의협을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재정건전화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중앙윤리위원규정과 선거관리규정 개정 등을 위하여 정관개정특별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으며, 결과물은 올 4월 정기총회에 내어 놓겠습니다.

올해 대의원회와 의장은 의료계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고, 의협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근본을 재정립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협의 깃발아래 모든 의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의협위상 회복계획을 실행에 옮기고자 합니다.

그 동안 의협이 의료법에 따른 중양회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여, 회원들에게 많은 불이익을 주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의협과 병원협회가 서로 경쟁관계가 되도록 유도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의사들에게 불리한 정책을 강제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수가 계약에 불이익이 있었으나 의사들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의협의 깃발 아래 개원의사와 병원 의사, 병원협회와 의원협회 등 모든 의사들과 의료 단체가 하나가 되어 직역간의 벽을 허물고 대외적인 창구도 일원화 하여 건강하고 튼튼한 의협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의권문제 해결과 의협발전의 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하나 된 의협의 힘으로 우리의 정당한 주장을 관철시켜 따뜻하고 활기 넘치는 진료실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진료할 수 있는 원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변영우**

“희망을 진료하는 경북의사회 회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존경하는 경북의사회 회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대구 중·남구 출신 김희국 의원입니다.

먼저, 「제51호 경북의사회보」를 발간하게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 동안 300만 경북도민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과 지역의료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정능수 회장님을 비롯한 경상북도의사회 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의사회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료 활동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의 주역일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더욱이, 경북 곳곳에서 보여준 다양한 의료봉사 활동은 불우시설, 재해재난 현장 등에서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경상북도의사회 회원 여러분!

메마른 땅 위에 의료인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샘물이 되어, 우리나라가 가난한 약소국가에서 보건의료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 누구나 다양하고 질 높은 의료 인프라를 편이하게 접하게 된 것은 헌신적인 희생과 열정으로 힘을 쏟으신 여러분 덕분으로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의료 선진국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더불어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보건정책의 보완이 함께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환자는 최상의 진료를 받아야 하고, 의료인은 최상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적정 의료수가구조를 만드

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의료인 여러분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국민 건강지킴이로서의 본분을 충실히 이행함은 물론, 환자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아론 레빈(랍비)이라는 사람은 병원에 입원한 한 여성 환자를 문병 가서 새 비옷을 선물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선물을 전하며 “요즘 날씨가 안 좋으니, 조만간 비옷이 필요할 거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 선물은 여성 환자에게 빨리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희망을 품게 하는 큰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경상북도의사회 회원 여러분!

아론 레빈이 환자에게 희망을 선물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와 희망 그리고 신뢰를 줄 수 있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경상북도의사회가 도민 건강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가 보건의료 선진국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51호 경북의사회보」의 발간을 축하드리며, 경북의사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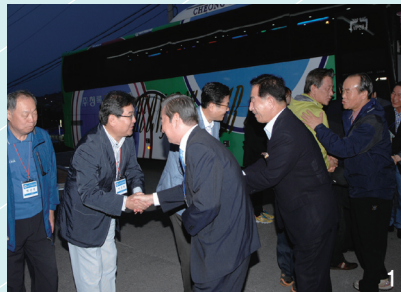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서로가 함께 더불어 사는 행복한 대한민국!
함께 희망을 이야기하고,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누리당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김희국

사진으로 다시보는

제28회 경북·전북의사회 친선행사



1. 전북의사회의 환영 영접
2. (좌부터) 김주형 전북회장 환영사, 정능수 경북회장 답사, 노환규 의협회장 축사, 변영우 의협회장 축사, 방인석 전북의장 축사, 김광만 경북의장 축사



3. 경북의사회 한형원 부회장의 기타와 하모니카 연주
4. 전북의사회원들로 구성된 9인조 doctor's band의 축하공연

Photo News



1. 변산 마실길을 걸으며
2. 전나무 숲길을 지나 내소사 경내 관람



3. 경북·전북의사회 기념품 전달
4. 친선행사를 마치며 다함께 기념촬영



제2회 사회공헌 및 의료봉사 활동 기금 마련 골프대회



1. 참석한 내빈들과 함께 골프대회 시타



2. (좌부터) 우승 김동욱(구미), 2위 석제홍(김천), 3위 조준범(구미), 메달리스트 이우석(포항) 회원



3. 경주시의사회 단체전 우승
 4. (좌부터) 챔피언 김동욱(구미), 이우석(포항), 유기찬(경산), 최종호(포항) 회원
 5. 봉사기금 전달 (단장 장우석 부회장 - (좌) 정능수회장, 김광만의장, 신명준 포항회장代 이우석 부회장, 조성범·김재왕 부회장)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2013 전국의사궐기대회



1.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다짐하며 개회사를 하고 있는 노환규 의협회장



2. 잘못된 보험제도를 타파하는 퍼포먼스
3. 의협 상임이사들의 삭발 투쟁
4. 노환규 의협회장을 선두로 한 거리행진
5. 뒤따르는 경북의사회 회원들

제28회 경북·전북 친선행사서 화합과 우의 다져

전북 부안 바다호텔에서 제28회 경북·전북의사회 친선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양도의회사회의 화합과 우의를 다졌다.



본회와 전라북도의회는 지난 9월 28일(토)부터 29일(일) 양일간, 전북 부안 바다호텔에서 제28회 경북·전북의사회 친선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양도의회사회의 화합과 우의를 다졌다.

이날 친선행사는 본회에서 정능수 회장을 비롯한 김광만 대의원회 의장, 신은식·최종두·이원기·이석균·정만진 고문, 임원과 시군의사회장 등 49명이, 전북의사회에서는 김주형 회장과 방인석 대의원회 의장, 장명규·천희두 명예회장 등 67명과 내빈으로 노환규 의협회장,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 나창수 전라남도의회사회장 등 120여 명이 참석하였다.

김주형 전북의사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북과 경북의사

회 회원 상호 간의 정을 나눌 수 있도록 알찬 시간으로 준비한 만큼 이번 친선행사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더욱 넓히고 의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하였다.

또한, 본회 정능수 회장은 답사를 통해 “소통으로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고 힐링의 시간을 통해 그동안 진료현장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전북과 경북이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전북의사회에 감사드립니다.”며, “오늘 행사를 통해 전북과 경북의사회의 친선교류를 시작하신 선배님들의 뜻을 받들고 긴밀히 협력하여 의료계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이어 의협 노환규 회장과 대의원회 변영우 의장은 친선행사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즐겁게 지내시길 바란다는 축사가 있었다.

전북의사회 초청으로 의료계의 단합과 회원 상호 간의 화합의 장으로 열렸으며, 안동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아쉬운 작별을 나누었다.



이어 만찬과 더불어 전북의사회 회원으로 구성된 밴드의 멋진 공연과 함께 보이차 강의 및 시음 등으로 양 지역의사회의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튿날에는 비가 오는 가운데 전북 부안의 변산 마실길을 걸으며 푸른 파도와 부안의 자연을 벗 삼아 걸으며 가을의 정취를 느끼고 아름다운 단풍과 전나무 숲길로 유명한 내소사 방문을 통해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금번 친선행사는 전북의사회 초청으로 의료계의 단합과

회원 상호 간의 화합의 장으로 열렸으며, 기념품 전달과 환송사를 끝으로 2013년도 경북·전북의사회 친선행사를 마무리하고 안동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아쉬운 작별을 나누었다.

경북·전북의사회 친선행사는 88고속도로의 개통과 더불어 1987년 당시 김병주 전북회장과 오삼달 경북회장이 자매결연을 맺어 상호 의료계 현안을 논의하고 회원 상호 간의 화합과 친선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까지 상호 격년제 행사로 개최되고 있다.

◆ 사회공헌 및 의료봉사 후원신청 및 후원금 납부방법

- 자동이체 (1구좌 10,000원, 10구좌 이내), 일시납 등
- 입금계좌 : 농협 301-0112-2492-11 / 대구은행 504-10-129035-7 경상북도의사회

◆ 의료봉사단원 모집

- 사회공헌 및 의료봉사활동에 관심있는 회원 (☎ 053-941-7785)





사회공헌 및 의료봉사 기금 마련을 위한 제2회 회원친선 골프대회 성황리 개최

본회는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모습과 기부문화를 통해 존경받는 의사상을 구현함은 물론 소외된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는 손길을 전하기 위하여 지난 9월 8일(일) 오후 1시, 제니스송라CC에서 '사회공헌 및 의료봉사 활동 기금마련을 위한 제2회 경상북도의사회장배 회원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원친선 골프대회는 회원간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이루고 의료봉사 기금마련을 위해 본회 정능수 회장과 대의원회 김광만 의장, 울산시의사회 백승찬 회장, 치과의사회 권오홍 회장, 한의사회 이재덕 회장, 약사회 한형국 회장과 최종두·이원기·정만진 고문 등 회원 160여명이 참석하여 개최되었다.

정능수 회장은 인사를 통해 “지난 7월 캄보디아 왕립군의 과학연구소에서 4박 6일간 첫 해외의료봉사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회원 여러분이 기부해주신 성금과 5개 보건단체에서 참여한 63명의 의료봉사단(단장 장유석 부회장)의 헌신적인 노력과 39개 제약회사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고 하였다. 또한 “우리의 삶은 ‘GIVE & TAKE’로 GIVE가 크면 클수록, 의미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 만큼의 TAKE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기부하는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행위 중의 하나로 사회의 그늘진 곳에 기부를 통해 함께 보듬어 가자.”고 하였다.

김광만 대의원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모처럼 만난 동기와 선후배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주제로 사회공헌 및 의료봉사 활동 기금으로 총 79명의 회원이 2,403만원(연간)의 후원금을 납부하였다.

이번 친선경기를 통해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자.”고 하였다.

이어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과 골프대회 시타를 시작으로 각 홀로 출발하여 신페리오방식(샤건방식 스타트)의 친선경기를 펼친 결과 개인전 우승에 김동욱 회원(구미)이 차지하였으며, 준우승은 석계홍 회원(김천), 3위 조준범 회원(구미), 메달리스트 이우석 회원(포항), 다버디상 박경대 회원(경주), 다파상 최종호(포항)·황석순(포항)·문상웅(안동) 회원, 다보기상 김익 회원(포항), 대파상 지성구 회원(구미), 잉꼬상 김우석 회원(포항), 룡기스트 전시현 회원(영천), 니어리스트 서창수 회원(영덕), 행운상 이재흠 회원(의성), 의상상 임지훈 회원(경주), 매너상 최종두 회원(안동)이 차지하였다.

단체전은 각시군 선수 상위 3명의 성적을 합산한 결과 경주시의사회가 우승을 차지하였으며, 김동욱(구미)·이우석(포항)·최종호(포항)·유기찬(경산) 회원이 전체 선수 중에서 챔피언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으며, 개인전과 단체전 경기성적에 따른 시상식 후 추첨을 통해 꾸집한 경품과 참가선물을 마련하여 참석한 회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친선경기와 함께 지난해와 같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주제로 사회공헌 및 의료봉사 활동 기금으로 총 79명의 회원이 2,403만원(연간)의 후원금을 납부하였다.

특히 이날 행사장 현장에서는 본회 정능수 회장 500만원, 대의원회 김광만 의장이 200만원, 경북적십자사 신기옥 회장과 포항시의사회 신명준 회장, 김재왕·장유석·조성범 부회장이 100만원을, 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와 대구·울산시의사회에서 후원금을 기부하였으며, 회원들 또한 후원기금모금에 1인 1계좌 이상씩 동참하였다.



감 / 사 / 인 / 사 / 드 / 립 / 니 / 다

- 사회공헌 및 의료봉사 기금 후원 -

일시납

2013. 9 ~ 2014. 1 현재까지

■ 500만원

· 정능수(의성, 동산연합의원)

■ 200만원

· 김광만(포항, 지곡그린의원)

■ 100만원

· 김재왕(안동, 김재왕내과의원)
· 신기욱(대한적십자사 경상북도지사 회장)
· 신명준(포항, 신명준외과의원)
· 장유석(경산, 장유석외과의원)
· 조성범(경주, 한빛아동병원)

■ 50만원

· 경상북도약사회(회장 한형국)
· 경상북도치과의사회(회장 권오홍)
· 한형원(포항, 한형원내과의원)
· 황석순(포항, 황석순내과의원)

■ 30만원

· 경상북도한약사회(회장 이재덕)
· 대구광역시사회(회장 김종서)
· 울산광역시사회(회장 백승찬)
· 장재혁(경산, 제일정형외과의원)

■ 20만원

· 김종영(경산, 김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 이종형(영천, 대동정형외과의원)

■ 12만원

· 강래균(영덕, 강구외과의원)
· 권귀련(포항, 포항세명기독병원)
· 김동욱(구미, 조은 i 의원)
· 김하균(칠곡, 석적중앙의원)
· 서창수(영덕, 서창수외과의원)
· 성승모(포항, 시티요양병원)
· 신은식(포항, 신정형외과의원)
· 윤영목(안동, 안동기톨릭피부과의원)
· 이상호(의성, 대신의원)

■ 10만원

· 권오홍(경산, 권치과의원)
· 김광인(안동, 안동제통의원)

· 김두표(안동, 안동병원)
· 김원기(상주, 김원기신경외과의원)
· 김 익(포항, 김익가정의학과의원)
· 김인환(영천, 김인환내과의원)
· 김진업(경산, 옥산삼성의원)
· 김철기(구미, 김철기소아청소년과의원)
· 김학근(구미, 중앙내과의원)
· 마상수(문경, 서울연합내과의원)
· 박경대(경주, 박경대내과의원)
· 박봉기(문경, 박내과의원)
· 박우진(문경, 중앙의원)
· 백승찬(경산, 경산중앙병원)
· 석제홍(김천, 석제홍제통의원)
· 송재경(포항, 송재경산부인과의원)
· 신년재(포항, 하나이비인후과의원)
· 신주용(구미, 세명영상의학과의원)
· 안재현(포항, 안재현의원)
· 오세진(포항, 오세진비뇨기과의원)
· 유기찬(경산, 류앤닥터스연합내과의원)
· 이선희(포항, 포항제통신경외과의원)
· 이승구(상주, 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 이우세(포항, 대한정형외과의원)
· 이원기(포항, 이원기외과의원)
· 이재덕(경산, 천수한의원)
· 이춘식(경주, 경주내과의원)
· 이현철(포항, 이현철의원)
· 이홍우(경주, 서울내과의원)
· 임승우(영천, 신령의원)
· 전시현(영천, 동산정형외과의원)
· 전용성(칠곡, 영남외과의원)
· 전용성(구미, 우성비뇨기과의원)
· 정능수(의성, 동산연합의원)
· 정원후(영천, 영천성모병원)
· 정재봉(포항, 고운피부과의원)
· 조진태(영천, 조가정의학과의원)
· 최유근(안동, 최유근안과의원)

· 최종두(안동, 최정형외과의원)
· 최종호(포항, 최종호재활의학과의원)
· 한형국(포항, 효자한약국)
· 황정환(상주, 상주성모병원)

■ 5만원

· 김우석(포항, 오거리사랑요양병원)

자동이체

■ 10구좌

· 권순호(의성, 삼성연합의원)

■ 5구좌

· 고령군의사회(회장 백두현)
· 최영환(안동, 최영환내과의원)

■ 3구좌

· 김병용(구미, 해피맘산부인과의원)
· 김찬중(칠곡, 우리가정의학과의원)
· 이재흠(의성, 경북외과의원)

■ 2구좌

· 이건중(의성, 서울미취통증의학과의원)

■ 1구좌

· 김성기(영천, 영남미취통증의학과의원)
· 김일환(의성, 김일환내과의원)
· 문상웅(안동, 제일외과의원)
· 박정권(칠곡, 박정권소아청소년과의원)
· 서보균(포항, 포항교도소부속의원)
· 송기연(포항, 포항세명기독병원)
· 신승호(포항, 신승호정형외과의원)
· 이건희(경산, 파티마연합통증의학과의원)
· 이국희(의성, 동산연합의원)
· 이우석(포항, 영동안과의원)
· 정만진(청송, 경북북부제3교도소부속의원)
· 정세주(김천, 정세주내과의원)
· 정태호(포항, 포스코부속의원)
· 지성구(구미, 경북외과의원)
· 최계정(김천, 동산연합의원)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 영천 은해사(팔공산 중암암)서 개최

청명한 가을 날씨 속에 진행된 2013년도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와 건강증진을 위해 지난 10월 13일(일) 오전 9시 30분, 영천 은해사 일원인 팔공산 중암암을 산행하는 코스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개최된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는 본회 정능수 회장과 김광만 대의원회 의장, 신은식·이석균·정만진 고문을 비롯한 회원 및 가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상웅 총무 이사의 진행으로 시작되었다. 정능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번 등반대회를 통해 많은 회원과 함께 산을 오르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팔공산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즐기면서 푸른 하늘과 상쾌한 가을을 느끼도록 하자.”고 하였으며, 또한, 최근 의료현안으로 토요 가산제 확대와 아청법(일명 도가니법) 시행, 공제조합 법인 설립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산적한 의료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하였다.

김광만 대의원회 의장은 “오늘 등반대회를 통해 회원 상호 간 친목을 도모하고 건강을 챙기는 것은 물론 진료현장에

서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충전의 시간을 갖자.”고 하였다.

등반대회는 2개의 코스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1코스는 영천 은해사 주차장을 출발하여 백홍암과 중암암을 거쳐 다시 회귀하는 9km의 코스로 3시간이 걸렸고, 2코스는 영천 은해사 주차장을 출발하여 백홍암을 회귀하는 6km의 코스로 1시간 30분으로 진행되었다.

등반을 마친 회원 및 가족들은 은해사 인근 술밭식당에 마련된 뒤풀이 행사에서 맛있는 점심식사 후 내빈 소개와 더불어 신은식·이석균·정만진 고문의 건배 제의와 함께 산행의 피로를 풀었다.

이날 등반대회는 포항과 경주에서 전세버스를 대절하여 참석하는 한편, 도내 각지에서 회원들이 모여 상호 간 친목을 다지며 건강을 챙기는 등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또한, 참석한 회원에게는 고구마 빵을 선물로 증정하였다.

2013년도 경상북도의사회 추계종합학술대회 성황리 개최



본회는 지난 11월 3일(일) 오후 2시부터 경북대학교병원 10층 대강당에서 회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추계종합학술대회는 최영환 학술이사의 사회로 진행되어 최신 의학지견의 활발한 교류와 회원 보수교육사업의 일환으로 개원회원들의 임상진료에 도움이 되는 학술 연제를 선정하여 최신 의학지식과 회원들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강의와 더불어 다양한 정보교류의 장이 되도록 하였다.

학술대회 첫 번째 세션은 본회 장유석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의약품 처방 및 투약에 따른 의사의 설명의무'라는 주제로 경산중앙병원 임좌혁 병원장의 강의를 시작으로 총 3편의 학술 연제가 발표 되었다.

두 번째 세션은 본회 김재왕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2013 ESH-ESC 고혈압 치료 가이드라인'에 대해 영남의대 내과학교실 김웅 교수의 강의 등 3편의 학술 연제로 진행되어 총 6편이 발표 되었으며, 이날 참석한 회원에게는 대한의사협회 연수 평점 6점이 주어지는 등 성황리에 마쳤다.

한편 이날 캄보디아 속모니 내무부차관이 학술대회장을 방문하여 관람하고 참석한 회원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학술 발표 연제

- 의약품 처방 및 투약에 따른 의사의 설명의무
 - 경산중앙병원 임좌혁 병원장
- 치매의 조기발견 및 약물치료
 - 계명대 정신건강의학교실 김희철 교수
-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작성요령
 - 대구가톨릭의대 가정의학교실 이건호 교수
- 2013 ESH-ESC 고혈압 치료 가이드라인
 - 영남의대 내과학교실 김웅 교수
- 음식과 건강의 상호관계 연구에 관한 역사적 고찰
 - 울산, 새아침연합내과의원 정인권 원장
- 한국에서 새로 발견되는 감염성 질환
 - 경북대의전원 내과학교실 장현하 교수



임좌혁 병원장



김희철 교수



이건호 교수



김웅 교수



정인권 교수



장현하 교수

전국 의협회원 2만5천명 여의도서 쫓기대회

— 본회 전세버스 17대에 분승, 600여 명 참석 —



대한의사협회 회원 2만 5000여 명이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15일(일)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2013 전국의사 쫓기대회'에 참가하여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 개혁과 관치의료 타파를 위해 절규의 함성을 질렀다.

이날 쫓기대회는 정부의 규제일변도 의료정책을 규탄하고, 전문가의 목소리가 존중되는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다짐했으며,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개혁과 현행 의약분업제도의 중단 및 선택분업으로 전환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피로써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다짐하며 개회사를 하였으며, 이어 의협 대의원회 변영우 의장의 격려사와 임수흠 서울시사회장, 한송이 회원(서울 강남구 의사회 총무이사, 의협 전문위원)과 이나리 회원(경기도 남양주시)이 단상에 올라 벼랑끝에 몰린 대한민국 의사들의 처지를 개탄하며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를 대표해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의료계와 연대투쟁의 의지를 밝혀 눈길을 모았다.

연대사에 이어 의협 상임이사들은 삭발을 통해 투쟁 각오를 다졌다. 임병석 법제이사과 추무진 정책이사, 방상혁 기획이사는 머리를 깎는 결단을 보이며 투쟁의 맨 앞에 설 것을 다짐했다. 특히 임병석 법제이사(변호사)는 의협 회원이 아님에도 의료혁명 투쟁에 나서 삭발까지 감행하는 결의를 보여 이날 참석한 2만 5000여명의 회원들로부터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의협은 쫓기대회를 통해 확인된 회원들의 투쟁 열기를 밑거름으로, 1차적으로 시급한 현안인 원격의료법과 영리병원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나아가 '저수기' 체제를 핵심으로 하는 왜곡된 건강보험제도의 개혁과 전문가를 무시한 '관주도의 보건의료정책 철폐'라는 근본적인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협은 이 같은 투쟁 기조를 중심으로 6월 지방선거를 겨냥,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어서 당분간 의료계에 드리운 전운은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본회는 600여 명의 회원과 가족이 각 시군의회별로 전세버스 17대에 분승하여 이른 아침부터 상경하여 투쟁의 대열에 합류했으며, 대정부 투쟁관련 토요일에서 전국 최고의 참여율을 보여주었던 저력을 바탕으로 이번 대정부 투쟁에서도 선봉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성명서

원격의료법,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최근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의 본질을 왜곡시키며, 일차 의료의 말살을 획책하는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입법 예고하였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정부의 원격의료 강행을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

1.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전통적으로 지켜져 왔던 의료의 장점을 없애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직접 환자를 보지 않고 화상으로만 진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며, 그로 인한 심각한 의료의 질 저하가 명약관화하다. 그리고 만약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진료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국민에게 막심한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

1. 의료란 의사가 환자의 건강상태를 고도의 지식과 숙련된 경험으로 살펴서,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의사는 의료법에 명시된 것처럼 '최선의 의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책임과 의무감을 바탕으로 의사는 환자의 건강회복에 필요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게 된다. 특히 환자와의 대화나 표정 변화 등 이면에 숨겨진 건강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의사의 통찰력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는 간과하고 있다. 오로지 계량화된 디지털 숫자에만 의존하면서, 제한된 영상 화면만으로 국민의 건강을 최선으로 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번 원격의료법안은 의료 본질의 가치를 무시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정책임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1. 정부는 일차 의료를 살리는 원격의료라고 홍보하지만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한 명이 외래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원격의료와 외래진료를 동시에 감당하기 어렵다. 이는 환자유치를 위한 과당경쟁을 촉발, 의원 간의 갈등만 증폭시킬 수 있으며 원격진료를 위해 소비자, 공급자 모두 원격의료 기기 및 장비구매를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번 파괴된 의료생태계는 다시 복구되기 거의 불가능하며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대한민국의 선진 의료시스템을 일시에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결국 일차의료기관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일차의료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

의사와 환자, 모두가 원하고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의료현안이 산적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졸속 법안이 입법예고 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한다. 정부는 이번 원격의료허용법을 즉시 철회하라.

2013년 11월 5일

경상북도 의사회

‘2014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총파업 출정식’ 개최

–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는 경우, 3월 3일 총파업 결의 –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월 11일부터 12일, 전국 의료계 대표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의 구체적인 방향과 방식을 논의했다. 본회에서는 정능수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과 시군임원 22명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참석자들은 파업 투쟁의 필요성과 시기 및 방식 등을 놓고 오후 5시 30분부터 다음날 1시 30분까지 약 8시간에 걸친 격론을 벌였다. 이날 △총파업 등 대정부 투쟁 로드맵(의협 및 시도 의사회 역할, 구체적인 투쟁 일정) △원격의료·영리병원 저지,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향후 대응방안(대국회, 대정부 일정을 고려한 대응방안) △대국민 호응을 통한 대정부 투쟁 성공 전략의 주제로 분과토의 후 11시 30분경 종합전략토의를 거쳐 최종 투쟁 로드맵을 확정하고 발표하였다.

대표자들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진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협은 정부에 엄중한 경고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한을 두고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시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의결했으며, 우선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법(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 시도 의사회가 평일 하루 휴진에 돌입하고 비상총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별로 다

양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후에도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정책에 대해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는 경우, 오는 3월 3일을 기해 전국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단 정부의 입장 변화에 따라 유보될 수 있고, 이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으며, 총파업의 시작과 종료 시점은 전회원 투표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원격의료, 영리병원 사안 등을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하는 보건복지부의 제안은 거부했다. 이날 의료계 대표자들은 정부가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허용 정책을 중단하지 않는 한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대신 의료계가 원하는 방식에 따른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역제안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안한 협의체에 참여해 정부와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대다수 참석자들은 현 상황에서 정부와의 협의는 무의미하다는데 입장을 함께 했다.



기사: 의협신문 제공

원격의료

History

2009.7	정부, 환자-의사간 원격진료 추진
2009.8	의협,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된 원격진료를 조건으로 찬성의견
2009.11	회원들의 반대의견으로 의협 의견 반대로 선회
2010.1	원격의료법 규제개혁위원회 통과
2010.3	법제처에서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 부적합 판정
2013.10.29	보건복지부, 핸드폰/PC/인터넷을 이용한 환자-의사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 입법예고
2013.11.	의협, 원격의료법 입법예고에 대해 강력반발하며 철회요구
2013.12.10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소폭 수정
2013.12.15	전국 의사궐기대회
2013.12.16	원격의료법 규제개혁위원회 통과
2013.12.19	원격의료법 법제처 통과

정부의 최종 입법예고안

- 핸드폰/컴퓨터/인터넷 등으로 환자-의사 간 원격진료와 전자처방전 발행을 허용
- 정부는 핸드폰 진료 강행 의지 표명 (초진 포함)

원격진료허용법안의 위험성

- 오진의 가능성 증대, 그러나 책임은 의사에게
 - 원격진료는 시진/문진/청진/타진/촉진 등 진료의 5대 요소 중 문진만 가능한 진료
- 진료의 개념변화 및 가치 하락
 - 진료의 기본 개념이 대면진료에서 원격진료로 변화할 가능성 높음
 - 의료/진료의 가치하락 발생
- 원격진료 전문병의원으로서 환자 쏠림현상 발생
 - 환자쏠림현상으로 인한 경영악화 의원 증가
 - 이로 인한 의료접근성 저하

원격의료 남용사례

- 2000년 8월, 모 의사가 불법으로 원격진료를 강행한 사례 있음. 당시 5명의 의사가 단 이틀 동안 13만여명을 인터넷으로 진료하고 그 중 7만 8천여명에게 처방전을 발급함 (아파요닷컴)
- 위 사례는 진료의 정확성보다 편의성을 우선시하는 국민의 수요와 일부 비윤리적인 의사들이 만났을 때 얼마나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시사함

**정부가 추진하려는 것은
대면진료를 핸드폰 진료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절대 막아야 합니다.**

영리병원

History

- 2012 기획재정부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예고 후 현재 국회에 상정된 상태
현오석 경제부총리 - 여러 차례 영리병원 허용 필요성 강조
- 2013.12.13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발표 (법인병원으로 하여금 영리자회사를 설립하여 의료부대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 시기 :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후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 성격 : 서비스산업 분야의 각종 규제법안을 대통령령으로 완화 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모법(母法)
- 의미 :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가 의료와 관련된 각종 규제법안들을 국회 통과 필요 없이 대통령령으로 발표할 수 있음. 다양한 민간치료사와 외국인의사면허를 인정하는 내용 포함되어 있음.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 시기 : 2013.12.13 정부가 발표함
- 주요내용 : 1) 성실공익법인으로 신고된 의료법인(전국 848개 해당)들이 영리자회사를 설립하여 의료기관 임대, 의료가기 공급 등 의료부대사업과 건강보조식품, 화장품사업, 온천욕, 호텔업 등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2) 법인 인수합병 가능 3) 한방물리치료사 허용
- 문제점 : 병원경영손실의 원인인 저수가 문제는 그대로 두고 편법을 권유하는 정부대책안, 진료수익을 영리자회사로 빼돌릴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을 열어 놓음으로써 영리병원을 우회적으로 허용

영리병원?

- 병원투자 직/간접 허용
 - 투자수익 환원이 진료의 목적보다 우선
 - 의료수가에 대한 개선책 없음
 - 공공의료에 대한 강화대책 없음
 -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대책 없음
 - 의료법 완비에 대한 대책 없음
- ➔ 이러한 사항들이 선결되지 않을 경우 사무장병원 활성화 대책과 다름 없음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의 개혁

현행 건강보험제도

- 1977년 이래 줄곧 원가 이하의 건강보험수가 강요
- 2006.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표 : 건강보험수가의 평균 원가 보전율은 73.9% (당시 약국의 조제료의 원가보전율은 124%)
- 2006년 이후에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밀도는 진료수가 인상률로 인해 현재 원가보전율은 70% 내외로 추정 (병원협회 발표자료에 의하면 중환자실 원가보전율 약 40% 내외, 응급실 원가보전율 38~80%)
- 낮은 진료수가로 인한 손실을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비급여진료료로 어렵게 보전하고 있는 상황

저수가로 인한 피해

- 의료의 질 떨어짐 (불성실한 진료 초래)
- 의사의 의욕 저하 초래 ● 의료발전 저해
- 의료의 질을 지키려는 양심과 현실적인 재정손실의 충돌
- 비급여 진료비는 전액 환자부담으로 환자의 부담이 커짐 (의료비 때문에 재정파탄에 빠지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OECD 34개 국가 중 1위)
- 이러한 환자의 부담은 의사 및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과 원망으로 돌아옴

저수가가 유지되어 온 이유

- 모든 계약의 원칙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성
- 그러나 의사-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계약은 보험자에게 유리한 일방적 계약
- 이것이 유지될 수 있었던 첫째 이유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라는 제도에 의해 합법적으로 보험공단과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이며
-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사협회가 보험자의 일방적인 수가를 거절하는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는 횡포를 저질러왔기 때문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적게 거두고 적게 보장하며 적게 지급하는 저부담, 저보장, 저수가 제도
- 저부담, 저보장은 민간의료보험의 가입확대를 초래
- 현재 약 2천7백만명의 국민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에 가입
- 정부는 국민의 비난여론을 두려워하여 건강보험료 현실화를 미루고 민간의료보험에 떠넘기는 상황
- 결국 민간의료보험료를 합산할 경우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실제로는 중부담/중보장/저수가 제도임

올바른 건강보험제도

- 현행 원가 이하인 건강보험수가의 원가보전율은 110%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함
-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납입분의 상당분을 건강보험수가에 반영토록 전면 개편 필요
- 공공의료를 떠맡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재정지원, 세제지원 등 다양한 경영지원 필요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합리적 재구성 필요

투쟁 요약

투쟁의 목적

-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의사들의 동력을 모아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저지 뿐 아니라 나아가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의 전면적인 개혁 등 잘못된 의료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통해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고자 함

투쟁의 목표

- 원격의료 저지 ● 영리병원 저지
- 잘못된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개혁 (저부담/저수가/저보장 제도 개선, 수가결정구조 개선, 건정심 개편 등을 포함)

배경

- 36년 동안 지속된 원가 이하의 건강보험수가를 강제하는 제도로 인해 의료가 붕괴된 상황
 - 지나치게 낮은 원가 이하의 건강보험수가로 의료의 질 저하 발생 (전체 진료 보험수가의 원가보전을 70% 내외, 중환자실진료 보험수가 원가보전을 40% 내외, 응급실진료 보험수가 원가보전을 40~80%)
 - 손실보전을 위해 비급여 위주의 왜곡된 진료가 강제되는 상황
 - 이로 인해 환자의 높은 의료비 부담 발생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 1위)
-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원격의료법 개정 : 핸드폰 진료를 허용하는 것으로서 오진의 가능성을 크게 높임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크게 훼손하고 의료체계의 큰 혼란을 초래하여 반드시 저지해야 함
- 영리병원 추진 : 정부는 부인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등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은 의료의 본질을 외면하도록 하는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문제개선을 외면하고 의료인으로 하여금 편법 이윤추구에 앞장서도록 하고 있어 반대함

현행 의료제도는

- 국민에게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지우고 있음
- 의료기관에는 경제적 희생과 싸구려 의료를 요구함 ● 정부만 생색을 내고 있는 제도

대정부 요구사항

- 원격의료 허용법안 (의료법개정안) 철회 ●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의료부문 철회
- 시민, 정부, 의료계가 다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산하 (가칭)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의 개혁 및 의료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시군의회사회 ‘비상총회’ 동시 개최하여 “원격의료 중단” 한 목소리



국민건강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 보건의료정책을 규탄하는 의사들의 합성이 전국 곳곳에서 일제히

울려 퍼진 가운데 본회 산하 시군의회사회서도 각각 ‘비상총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허용 방안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칠곡군의회사회는 지난 11월 14일(목), 봉화·울진군의회사회는 21일(목), 청도군·영주시의회사회는 26일(화) 이미 비상총회를 열었고, 27일을 기해 포항시·경주시·안동시·영천

시·상주시·경산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고령군·예천군의회사회가 동시에 비상총회를 열고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의 추진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통해 소상히 설명하고, 투쟁구호를 힘주어 외치면서 이번 비상총회를 마무리 지었으며, 영천시의회사회는 비상총회 결의사항을 발표하여 투쟁의 의지를 불태웠다. 각 지역별로 개최된 이번 비상총회는 316명이 참석하여 한 목소리를 냈다.

28일에는 문경시·성주군의회사회가, 12월 2일은 김천시의사회가, 구미시와 군위군의회사회는 12월 5일 각각 비상총회를 개최했다.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비상총회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전국 시도의회사회 산하 시군구의회사회별 집회를 개최키로 한 지침에 따른 것으로 각 시군별 상황에 맞게 비상총회를 열어 회원들의 투쟁 의지를 하나로 모았다.

전국의회사회대표자결의대회에서 ‘투쟁의지’ 다져



지난 12월 7일(토) 오후 4시, 대한의사협회 3층 회의실에서 전국 16개 시도의회사회 및 시군구의회사회, 개

원의협의회 산하 전문과목별 의사회, 병원의사협의회와 전공의협의회 등 지역·직역 단체 대표, 일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전국의회사회대표자 결의대회를 열고 관치의료 종식을 위한 대투쟁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의료계 대표자들은 △원격医료를 위한 의료법 개악과 영리병원을 도입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중단 △왜곡된 의료를 조장하고 최선의 진료를 막고 있는 저부담, 저수가, 저보장 체제의 건강보험제도 개혁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추진 중단 및 선택분업으로 전환 △관치医료를 중단하고 합리적인 의료정책 결정구조 보장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본회 정능수 회장을 비롯한 임원과 시군의회사회장과 임원 등 3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대표자결의대회에서 보여준 대표자들의 각오와 다짐은 12월 15일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열리는 전국의회사회 결의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예고했다.

의료계 대투쟁 관련 긴급 고문단 회의 개최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저지하고 잘못된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2013 의사 대투쟁과 관련하여

각시군구의회사회별로 반모임과 비상총회(11. 27)가 개최되고 있음에 따라 본회에서는 지난 11월 20일(수) 오후 7시 30분 대구에서 긴급 고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고문단은 원격의료 도입된다면 동네의원과 지방병원은 도산하게 되는 결과가 올 것이며, 정부는 창조경제를 들어 원격医료를 도입하려는 발상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사업으로 도입 자체부터 막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었다.

또한, 대정부 투쟁 또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의 편에서 나서야 할 것이며, 저수가·저비용을 운운해서는 안 될 것이며 원격의료 1차 의료기관에 미칠 영향에 대해 회원들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번 반모임과 비상총회를 통해 확실히 회원들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하루 빨리 제작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경주에서 전국 순회 가두행진

— 우천속에서도 강행 —



전국 의사 결의대회를 앞두고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의 전국 순회 행보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월 9일(월) 경북 경주를 방문하여 원격의료·영리병원 반대 구호를 외치며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날 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 속에서도 본회 정능수 회장을 비롯한 노환규 의협회장과 신명준 포항회장, 조성범 경주회장 및 회원 등 40여명이 참석하여 비웃을 입고 어깨띠를 두른채 피켓을 나눠 들고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했다. 가두행진에 앞서 오후 4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을 방문하여 이동석 병원장, 나득영 부학장과 간담회를 갖고 의협 대정부 투쟁의 목적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젊은 의사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병원 차원에서 지원해줄 것을 호소했다. 또한 동국대경주병원 전공의 30여명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전국 의사결기대회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필리핀 태풍피해 결혼여성 후원금 전달



태풍 하이엔으로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상북도내 필리핀 출신 결혼

이민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11월 21일(목) 오후 3시, 경상북도청에서 태풍피해 성금 5백만원을 전달했다.

후원금 전달식에는 포항 2명, 구미 1명, 문경 1명, 고령 1명 등 총 5명에게 각각 1백만원씩 전달하고 위로의 뜻을 전하였으며, 특히 포항에 거주하는 네린트라주나루즈 씨는 오빠와 남동생이 사망하고 가족의 피해를 입어 더욱 안타까움을 더했다. 현재 경상북도에는 필리핀 이민여성이 92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인명피해와 가족피해 등 61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공적인 전국 의사결기대회를 위한 연석회의 개최



대한의사협회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 위원회'는 12월 15일(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 의사결기대회를 개최함에 따라 본회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성공적인 대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군 의사회장님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12월 9일(월) 인터불고호텔에서 개최된 성공적인 전국 의사결기대회를 위한 시군회장 및 임원 연석회의에서 본회 정능수 회장과 김광만 대의원회 의장, 의협 노환규 회장,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 본회 고문단, 시군 회장 및 임원 4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노환규 회장은 의료제도 바로세우기의 주요내용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근본적인 건강보험제도 문제점 및 대책,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추진의 문제점 및 대책을 소상히 밝히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만이 살길이라며 12월 15일 서울로 집결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기도 하였다.

이어 투쟁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신명준 포항회장의 선창으로 '일차의료 말살하는, 원격의료 중단하라!', '경제논리 영리병원, 국민건강 부도나다!' 등의 구호를 다함께 외치며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날 참석한 고문단과 임원진, 지역의사회장은 한목소리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많이 참석해야만 성공적인 결기대회가 진행될 것이며, 이로써 우리의 의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에 모두 공감하고 경북의사회 만큼은 투쟁의 선봉에 설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경북의대 제30회, 졸업 50주년 기념 문집 출판



경북의대 제30회 동기회(회장 강창수)는 지난 11월 12일 (화) 오후 7시, 그랜드호텔에서 졸업 50주년 기념문집 출판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함인석 경북대학교 총장, 김익동 전 경북대학교 총장,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서창수

원장, 경북의대동창회 변영우 회장 등의 내빈과 많은 동문들이 참여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번 문집간행의 편찬위원으로는 강창수 회장, 이정창 총무, 윤석하·전재규·조세환·김도상 위원 등의 동기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의대 동창회의 역사에 길이 남을 최초의 문집을 발간했다. 문집 속에는 그간의 30회 동기의 역사를 기록한 연표와 동기들이 손수 적은 50주년 소감과 글, 역대 졸업 기념행사 회고록과 윤석하 동기의 화집 등 그동안 동기들의 깊은 정을 느낄 수 있는 증거들이 뽁뽁하게 수록되어 있다.

경상북도 보건단체 골프대회 개최



경 상 북 도 보건단체(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는 지난 10월 9일

(수), 블루원보문CC에서 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골프대회는 각 단체에서 1팀씩 선수조로 참가하여 경기를 진행한 결과 한의사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경상북도보건단체협의회 정능수 회장(본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각 직역별로 현안도 다르고 추구하는 이념도 다를 것이나 우리는 경북도민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은 모두 같다는 것에는 공감할 것이다.”며, “경상북도의 보건의료현안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보건단체의 위상을 높이고 도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대구·경북의사축구단 2013년 전국 의사축구대회에서 준우승



2013년 추계 전국 의사축구대회에서 대구·경북의사축구단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대한의사축구연맹이 주최한 이 대회는 지난 10월 27일(일) 충남 천안축구센터에서 열렸으며 총 12개 팀이 참가하여 A조(경기·대구·경북·충북·울산), B조(서울·충청·제주·창원), C조(전북·경남·강원·부산)로 나뉘어 예선전은 풀리그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매 경기에 35세 이상 회원이 5명 이상 출전하도록 정했으며, 예선순위는 승점·골득실차·다득점·추첨에 의해 결정했고, 각조 1위를 차지한 팀과 2위 3팀 중 승점이 앞선 한팀이 4강전에 진출하고, 나머지 각 팀들은 12위까지 순위결정전을 치렀다.

A조인 대구·경북의사축구단은 울산과의 첫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하고, 경기와의 두 번째 경기에서 1대1으로 비겼지만 예선전 마지막 경기인 충북과의 경기에서 3대0의 대승을 거두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전에서 C조의 경남팀을 맞아 1대1으로 무승부로 마친 뒤 승부차기에서 승리한 대구·경북팀은 결승전에서 부산팀과 맞붙어 최선을 다했으나 2:1로 분패했다.

대구·경북의사축구단은 18명(단장 노영균, 감독 정영철)의 선수들이 출전하였으며, 이날 준우승으로 은메달을 각자 목에 걸고서 지역의 명예를 드높이고 돌아왔다.

2013년도 의사회비 신용카드 결제 안내



www.igbma.or.kr 로그인 후 화면우측 배너창 클릭 회비결제

경상북도 우리마을 건강파트너 발대식



경상북도는 지난 10월 24일(목)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챔비홀에서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한 본회

정능수 회장, 도내 보건의료 자원봉사자 및 보건관련 대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자! 우리마을 건강파트너와 함

께, 경상북도의 행복한 미래로' 라는 주제로 '우리마을 건강파트너 발대식'을 가졌다.

이 날 발대식은 '우리마을 건강파트너'라는 경상북도 보건 의료 자원봉사자로서 참여와 나눔으로 희망의 내일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또한 지역보건향상에 기여한 우수 자원봉사자 13명에 대하여 도지사 표창패를 수여하고, 영남대학교의과대학 이경수 교수의 자원봉사자 실태와 운영에 대한 특강 및 시·군 우수 활동자들의 사례발표가 있었다.

건보공단대구지역본부와 간담회



최근 의료현안과 건강보험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10일(목) 오후 7시 30분, 송죽매

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상호 보험이사의 사회로 본회와 건보공단대구지역본부의 참석자 소개와 더불어 정능수 회장과 건보공단대구지역본부 김춘운 본부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이어 우병욱 보험급여부장으로부터 건보공단대구지역본부의 일반현황과 2014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체결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 및 2014년도 보험료 인상과 2013년도 보장성 확대 항목(초음파검사 등 8개 항목),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시행과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으로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 방안과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평생 맞춤형 통합 건강서비스 제공 방안 등에 상세한 보고가 있었다.

심사평가원대구지원과 간담회



지난 12월 4일(수) 오후 7시 30분, 본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과 개최된 간담회에는 본

회 정능수 회장, 황의동 심평원 대구지원장, 박병철 지역심사위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참석자 소개와 더불어 심평원대구지원에서 준비한 간담회 자료를 바탕으로 진료비 심사실적과 지표연동관리제의 항목별 실적과 운영 실적에 대해 간략한 보고가 있었으며, 2014년 심사방향으로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는 사전 정보제공 등을 통한 예방 활동 강화로 지표연동관리제 지속 확대, 선별집중심사 10항목 예정, 전산심사 지속 확대 및 추구관리 강화, 심사등과 현지조사 연계 강화, 자동차보험 심사 실시, 평가지속확대(친식, 포괄수가) 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건강보험 심사평가 업무 등 주요 전반에 대해 간담회가 이루어졌다.

- 회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



본회 회무 및 지역의사회와 병원급 의료기관의 주요소식을 발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경북의사회보'를 계간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들의 투고를 요청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 소 재 : 제한없음(시, 수필, 의학 및 건강칼럼 등)
- 원고매수 : A4용지 2장 내외(글자크기 12포인트 기준)
- 보내실 곳 : 홈페이지(www.igbma.or.kr)의 회원마당
→ 회보투고란에 게재(상시제출가능)
- 기타사항 : •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의사회보 편집방침에 따라 취지에 맞도록 약간의 원고 수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북대중 타종으로 희망찬 새해 맞아



지난 12월 31일 (화) 자정 영덕 삼사해상공원내 경북대중각에서 제야의 경북대중 타종행사를 열고 희

망찬 2014년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 송필갈 도의회의장, 본회 정능수 회장, 강석호 국회의원, 이영우 도교육감, 권기선 경찰청장, 김병목 영덕군수 등 많은 기관단체장과 관광객 등이 함께 참여하여 타종과 더불어 갑오년 새해를 맞았다. 또한 삼사해상공원 광장에 설치된 달집에서 '소원성취, 만사형통'이 쓰여진 불글씨를 점화하고 달집태우기를 통해 도민의 안녕과 경북의 더 큰 영광을 기원했다.

2014년 의료계 신년하례회 참석



대한의사협회는 2014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지난 1월 3일(금) 오전 11시, 의협회관 3층 대회의

실에서 노환규 회장을 비롯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 본회 정능수 회장, 새누리당 안홍준·박인숙·문정림 의원, 민주당 설훈·최동의 의원,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을 비롯한 의료계 주요 단체장들과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노환규 회장의 신년사를 비롯한 내빈들의 축사, 축하떡 킷팅, 건배사 등으로 2014년 의료계의 발전을 기원하였다.

「사진제공: 의협신문」

‘찾아라 경북 행복마을! 3호’ 자원봉사



시민·사회단체 회원의 재능을 활용하여 경북 오지마을을 행복마을로 변화하는

‘찾아라 경북행복마을! 3호’ 재능나눔 자원봉사가 지난 10월 12일(토) 오전 9시 30분부터 문경시 동로면 적성2리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자원봉사는 본회를 비롯한 경상북도 시민·사회단체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성2리 주민 70세대 154명을 대상으로 의료상담을 비롯한 도배, 전기, 방충망, 벽화그리기 등 주거환경 개선과 이미용, 장수사진 촬영 등 생활서비스가 제공되었다.

한편 이날 의료봉사에는 문경제일병원 이정식 응급의학과장이 진료에 참여하여 150여 명의 환자를 돌보고 주민들에게는 구충제를 투여하였다.

2013년 경북행복마을 평가회서 본회 감사패 수상



경상북도는 지난 12월 17일(화) 오후 4시, 도청 강당에서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한 본회 정능수 회장,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김도현 소장 등 200여명의 시민사회단체 봉사자와 마을 주민들이 함께 한 가운데 2013 경북행복마을을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날 평가회는 사업평가와 향후 확대추진 및 발전방안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로 행복마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적 보고를 시작으로 3개 마을에서 펼쳐진 시민사회단체의 재능나눔 봉사활동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활동현장을 되돌아보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본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찾아라! 경북 행복마을’ 재능나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여 경북의 오지마을을 행복마을로 변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감사패를 수상하였다.

캄보디아 속모니 내무부차관 내한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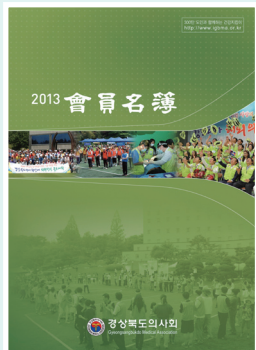
본회는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모습과 기부문화를 통해 존경받는 의료인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난 7

월 캄보디아 왕립군의과학연구소에서 해외의료봉사활동(단장 장유석 부회장)을 진행하였으며, 해외의료봉사와 더불어 왕립군의과학연구소는 MOU를 체결하고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캄보디아 속모니 내무부차관과 왕립군의과학연구소 관계자를 초청하여 지난 11월 1일(금) 오후 7시 30분, 아사다라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본회 정능수 회장과 김광만 대의원회 의장, 신기옥 적십자사 회장과 캄보디아 의료봉사에 참여했던 단원들이 참석하였으며, 캄보디아측에서는 SOK MONY(속모니) 내무부차관님과 KHIEV KUNTHY(키유쿤띠) 사무총장, MAO HENG(마오헝) 왕립군의과학연구소 교수와 CHAM ROEUN(참런) 속모니 보좌관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간담회에 앞서 오후 4시에 방문한 경상북도 주낙영 행정부지사와의 자리에서는 캄보디아 이주여성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며, 캄보디아국도 민주화와 경제발전 속도를 내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어 경북지방경찰청 김귀찬 청장과의 간담회서는 우리나라와 캄보디아국의 치안업무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 의료봉사시에 경찰청에서도 참여하여 노력봉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하였다.

본회 '2013년도판 회원명부' 발간



본회는 신규 회원의 증가와 연락처 변경 등 회원 상호간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새로운 '2013년도 회원명부'를 지난 12월 20일(금) 발간하였다.

금번 회원명부는 16절 규격 형태로 처음으로 실시된 회원 면허신고를 바탕으로 회원들

의 인물사진은 물론 성명(한글 및 한자), 생년, 의료기관명, 주소, 병원전화, 팩스, 휴대폰, 이메일, 면허번호 등을 가장 최신의 것으로 작성하였으며, 의료기관의 주소 또한 번지 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전면 개편하여 수록하였다. 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해 출생년도만 표기하고, 면허번호의 뒷 2 자리는 **로 처리하였으며, 인물사진과 휴대전화 및 이메일 등재 거부회원은 미기재 하였다.

또한 본회 집행부, 의장단 명단을 비롯해 각시군의회 및 병원 인명부와 부록편으로 회칙 및 세칙, 윤리위원회, 선거관리규정과 의협 및 시도의사회, 행정·유관기관의 연락처, 색인표 등이 담겨 총 332쪽, 2013년 11월 말 본회 전산 등록기준 3,100여명이 등재되어 지난 12월 24일(화) 전체 회원에게 우편으로 개별 발송되었다.

제35회 전국 의사 테니스대회에서 본회 우승 차지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건강한 체력증진을 위해 개최된 제35회 전국 의사 테니스 대회에 본회 대표

팀이 참가해 우승을 차지하였다. 전국 의사 테니스 대회는 지난 10월 20일(일) 오전 9시, 서울 목동 테니스장에서 대한 의사 협회의 후원과 한국 의사 테니스 연맹의 주관으로 개최되어 본회 대표 선수로 김성환·백성욱·서수한·정재봉·최진교(포항)·임영택(울진) 선수가 참가하여 예선 B조에서 서울 2팀과 2:1승, 경기 1팀과 3:0승으로 4강전에 진출하였고, 4강전에서 서울 2팀과 2:1승으로 이거 결승전에 진출하여 경기 2팀과 접전 끝에 2:1로 승리하여 은배부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여 상장과 상금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경상북도의사회 테니스 동호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량향상과 단합을 위해 다양하게 테니스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함은 물론 신규 회원 발굴에도 힘을 기울일 것이며, 테니스에 관심이 많은 회원은 테니스 동호회 김성환 총무이사(포항, 21세기연합정형외과의원, 054-253-2121)에게 연락하면 된다.

불법건강검진 및 단체예방접종 운영회의

— 본회 장유석 부회장, 위원장으로 선임 —



불법 건강검진 및 단체예방접종 신고센터 운영회의가 지난 10월 29일(화) 오후 7시 30분, 의사회관 3

층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그동안의 경과보고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날 운영회의는 대구시의사회 김석준 의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되어 참석자 소개, 경과보고 순으

로 진행되었으며, 박성민 위원장은 인사에서 바쁘신 중에도 회원의 권익을 위해 참석해 준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불법검진 및 단체예방접종 근절을 위해 노력하자고 했다.

토의사항으로 운영위원회 구성은 4개 단체에서 윤번제에 의해 본회 장유석 부회장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1년 동안 수행기로 했으며, 언론홍보 방안 및 운영 기금 부담의 건에 대해서는 일간지에 홍보기로 하고 운영기금은 50만원 인상된 200만원을 4개 단체에서 부담기로 했다. 기타 사항으로 정례회의를 년 2회(2월과 8월 4째주 월요일) 개최기로 확정했으며, 불법검진 및 단체예방접종 근절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공유가 있었다.

의사회보 편집위원회 구성



본회는 회무홍보 및 지역의사회와 병원급 의료기관의 주요소식을 발빠르게 전하고 있는 '경북의사회

보'의 원활한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장을 지난 10월 30일(수) 수여하고, 의사회보 발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직 위	성 명	지 역	의료기관명
위원장	김종영	경산	김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위원	이인태	포항	기계의원
	이창윤	경주	큰마디병원
	김대영	안동	김대영비뇨기과의원
	김광렬	구미	김광렬학문외과의원
	김영태	경산	성모연합내과의원

대구검찰청 및 KBS방송국 방문

본회 정능수 회장은 지난 1월 7일(화) 대구고등검찰청 신임 박성재 고검장과 대구지방검찰청 신임 오광수 지검장, 대구 KBS방송총국 신임 김준기 총국장을 방문하여 취임축하 인사

와 더불어 의사회 회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검찰청 방문에서는 응급실 폭행 관련 경과보고와 경북북부 교도소 의료장비 기증교정의료와 형 집행을 주제로 한 세미나 개최를 설명하고 앞으로 양 단체간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요청하였다.

본회 예산·결산 소위원회 개최



지난 9월 27일(금) 오후 7시 30분, 본회 사무처에서 지난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2013. 3. 23) 수입

사항으로 70세 이상 고령회원에 대해 회비 면제 또는 감면방안을 검토하도록 집행부에 위임되어 동 안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3년도 본회 일반회계 예산서와 현재까지의 지출 현황, 의협 및 본회 회비 면제 규정 등에 대해 상세히 보고하였으며, 총회에서 위임된 70세 이상 고령회원에 대해 회비 면제 또는 감면방안에 대해서는 회비 인상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기존과 같이 현행대로 유지와 감면 및 면제, 75세 이상 회원에 대한 감면 또는 면제 방안과 더불어 시행시기 조율 등 여러 가지의 합리적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상임이사회와 전체이사회를 통해 제 논의기로 하였다.

첨단메디컬 융합섬유센터 기공식 참석



경상북도는 경산시, 경북테크노파크와 함께 지난 11월 7일(목) 대구 경북경제자유구역청 경산지식산

업지구 내(경산시 와촌면 소월리 204번지 일원)에서 첨단메디컬 융합섬유센터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관용 경북지사와 본회 정능수 회장, 김종영 경산회장을 비롯하여 최경환 국회의원,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최영조 경산시장, 최병록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도·시의원, 지역 섬유관련 산학연 인사,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메디컬 섬유소재 개발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첨단메디컬 융합섬유센터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경산 지식산업지구 내 대지 5,369㎡ 지상 5층 규모로 382억원(국비 218, 도비 114, 경산시비 49, 민자 1)을 투입하여 2014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센터 내에는 메디컬섬유 신뢰성 평가 및 시제품 제작을 위한 공동 활용장비를 구축하여,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조성될 메디컬 섬유단지와 연계하여 메디컬 섬유 집적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메디컬 섬유분야의 우수한 전문 연구인력 확보를 통하여 지역기업에 부족한 R&D 기능을 지원하고, 메디컬 섬유소재 개발 및 상용화에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약 82종(218억원)의 유효성 및 시제품 제작 장비를 구축하는 등 원스톱 기업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박 대통령, 취임 후 첫 경상북도(안동) 방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2월 2일(월) 오전 10시,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경상

북도 업무보고'에 참석해 김관용 지사와 의료계를 대표해 본회 정능수 회장 등 지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날 방문에는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국무위원과 청와대 정무·경제·고용복지 수석비서관이 수행했으며, 업무 보고가 끝난 뒤 진병길 신라문화원 원장 등 지역 문화전문가들과 함께 '경북, 정신문화로 창조경제를 창달한다'는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한 뒤 경주로 이동해 석굴암을 방문했다.

경북도는 '문화 융성으로 열어가는 국민행복시대, 경상북도가 앞서서겠습니다'라는 부제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전통문화자산을 활용한 지역 문화 융성 실현 △창조경제와 투자유치로 일자리 창출 △정부 3.0의 선도적 추진과 함께 새마을운동의 세계화로 인류 공영에 기여 등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대구경북지역 공공보건의료 발전방안 심포지엄'



경북대학교병원은 지난 12월 4일(수) 오후 3시부터 '대구경북지역 공공보건의료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I부는 김건엽 경북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 교수의 진행으로 이근세 교수(건국대의)가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협력과 발전'이라는 기조발제가 있는 후 안문영 대구의료원장·김영일 김천의료원장·이한양 안동의료원장·백용현 울진군의료원장·변영우 포항의료원장·김영애 대구광역시 보건정책과장·이원경 경상북도 보건정책과장·김연숙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체계선팀장의 패널토론이 있었다.

또한 II부는 김건엽 경북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 교수의 진행으로 감신 경북대학교병원 보건의료사업실장이 '대구·경북지역 보건의료 사업 활성화'라는 기조발제와 함께 박미영 대구광역시 달성군보건소장·서용덕 경상북도 경산시보건소장·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김수용 매일신문 기자·이경수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상호공제 및 의료배상공제 가입안내

■ 가입개시 : 2013. 11. 26 ~ (수시가입 가능)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조합원들의 의료사고 분쟁에 대한 대비책으로 2종류의 공제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1기 상호공제의 특징

공제조합은 의료사고 분쟁에 대한 처리 및 피해보상을 통해 회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2013년 11월 26일 공제조합이 발족되었습니다. 상호공제는 공제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의료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회원을 도와주는 "상호부조" 성격으로, 매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가입조합원을 모집하여 보상의 재원을 마련하고 가입조합원의 의료사고분쟁 발생 시 아래의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면책금(자기부담금): 없음
- 보상한도액: 최대 1천만원
 - 의료사고분쟁 발생 시 공제조합직원이 사건조사 및 합의중재를 도와드리며 회원이 환자측과 합의 후 공제조합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보상 (선 합의 후 보상 시스템)
 - 실손보상은 아니지만 면책금(자기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소액 보상에 유리함

❖ 의료배상공제란?

- 의료전문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일어나는 수진자의 신체장해나 사망에 대하여 피공제자(가입조합원)가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보험성)
- 공제조합이 사업을 총괄 운영하며, 고액위험을 안정적으로 분산하기 위해 손해보험사와 업무 제휴
- 다년간 전문경험을 통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사건처리 및 보상금액의 현실화로 합리적인 합의 / 보상 지원
 - 타보험사와 차별화된 운영으로 합의율이 높으며, 합의가 안되는 경우 공제조합에서 민사소송 대행
 - 민사소송의 경우 법적 판결금 및 변호사비용, 성공보수 지원
 - 이를 통한 회원 권익보호, 합리적인 피해보상, 안정적 진료환경 구현.
 - 서울본부 및 주요 지역별로 공제조합 지역본부 설치하여 신속한 사건처리 지원

- 가입안내
 - 가입대상 : 의원급(30병상 미만)의 개원의 및 봉직의 ⇒ 개인 가입, 병원급(3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 ⇒ 병원단위 가입
 - 보상한도액 :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억원 <면책금 : 2백만원, 5백만원, 1천만원>
 - 가입기간 : 수시가입 가능 ⇒ 공제료를 입금한 익일 0시부터 1년간 가입유효
 - 특별약관선택) ①치료비용, ②관습상비용 ③발급, ④형사방어비용, ⑤초빙/마취의담보
 - 복수가입 할인 : 3인 이상의 피공제자가 연간 총보상한도액을 공유하는 경우 할인가능(15%~35%)
 - 타보험 가입조합원(전환가입시) 혜택 ▶공제료 할인 : 타보험 가입기간 중 무사고시 공제료 할인
▶소급담보일 인정 : 타보험 최초가입일(소급담보일)을 인정해 줌 ⇒ 의료사고분쟁 연장 가능성에 대한 염려 해결

❖ 의료배상공제 가입문의

- 절차 : 가입문의 ⇒ 공제료 안내 ⇒ 신청서 작성(Fax접수) ⇒ 공제료 납부 ⇒ 증권발송
- 문의 : ☎1899-0059 / Fax 02-6234-1346, 795-1346
- 사건처리 절차



- 가입문의 및 사건담당
 - 공제조합 본부
 - 서울/인천/경기/강원/제주 관할
 - [150-85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59 (신길동)
 - ☎ 1899-0059 / FAX 02-6234-1346, 795-1346
 - 납부방법
 - 은행(계좌) : SC제일 327-10-016923
 - 예금주 : (사)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 지역 본부
 - 부산[부산] ☎051-464-9568
 - 대구[대구/경북] ☎053-941-7102
 - 경남[경남/울산] ☎055-240-6228
 - 광주[광주/전남] ☎062-525-8601
 - 전북[전북/전북] ☎070-8808-6544
 - 대전[대전/충남/충북] ☎042-256-4589

제5회 경상북도의사회 학술상 및 봉사상 공모



본회는 의학에 대한 연구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학술상 수상자와 지역사회와 지역민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자에 대한 봉사상 수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시상개요

- (1) 상 명 : 경상북도의사회 학술상 및 봉사상(각 1명)
- (2) 시상내용 : 본상 상패 및 부상(각 금 1명)
- (3) 후 원 : (주)동원약품
- (4) 시상시기 : 2014년 3월 29일, 본회 정기대의원총회 석상

응모자격

- (1) 학술상
 - 본회 회원으로서 회원의 제반의무를 필한 자
 -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동일한 논문으로 타 학술상을 수상한 논문과 최근 3년간 경상북도의사회 학술상 수상자는 제외)
 - 1저자 혹은 교신저자

봉사상 (회원 및 단체)

- 본회 회원으로서 회원의 제반의무를 필한 자 또는 의사단체
- 국내 또는 국외에서 진료, 교육, 문화, 육영, 체육, 예술, 지역사회 개발, 사회복지사업 등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펴 본인 또는 지역주민 또는 관련기관, 단체 등 사회적 귀감이 되는 자
- 본인 신청 또는 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제출서류

- (1) 학술상
 - 신청서 및 이력서 각 1부
 - 논문목록표 1부(논문은 우선 순위로 기재)
 - 논문개요 및 학술적인 의의 및 의학발전의 공헌도에 대한 요약 1부
 - 논문의 별책 각 1권

제출사항

- (1) 신청(추천)서 및 이력서 각 1부
- 봉사개요 및 활동내역 1부 (각종사진 및 신문기사 등 활동사항)

제출마감

- (1) 제출마감 : 2014년 2월 21일(금)까지
- (2) 제출처 :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로 82 (대현동) 경상북도의사회
- (3)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직접제출 (제출서류 마감은 2월 21일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기타사항

- (1) 경상북도의사회 학술상 및 봉사상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며, 심사는 경상북도의사회장이 위촉한 심사위원회에서 함.
-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수상자에게는 본회에서 개별 안내합니다.
- (3) 제출서류(신청서 등) 양식은 [본회 홈페이지\(www.igbma.or.kr\)](http://www.igbma.or.kr)의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4)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본회 ☎ 053-941-7785](tel:053-941-7785)로 문의 바랍니다.
- (5) 응모자를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본회 학술상 및 봉사상의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수상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14. 1.

경상북도의사회

약학정보원 불법개인건강정보 습득 및 유출사건에 대한 단체소송 참여인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26일부터 약학정보원 개인건강정보 불법유출 혐의로 검찰 조사중인 사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기획정책위원회 산하 의료정보보호 특위에서 **단체소송에 참여할 선생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국민의 개인정보 노출

약국에 생긴 환자의 개인정보와 질병명, 처방약품 조제정보, 의사와 약사의 개인정보, 병의원과 약국의 기관정보.

모두 약학정보원에서 불법으로 빼돌렸습니다.

투약내역 불법 유출로 인한 당신의 민감한 질병정보도 이미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조제로 내고 개인정보도 뺏기는 국민은 봉인가?

SBS 저녁 8시 뉴스에서 보도된대로, 12월 11일 검찰은 의료정보 유출 혐의로 약학정보원 및 IMS 헬스코리아를 압수 수색하였습니다.

약학정보원은 의사들의 신상정보 및 환자들의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수집했고, 검찰 중간조사 발표상 연간 약 3억원의 돈을 받고 수백만건의 자료를 유출시켰습니다. 본 사건은 방대한 규모의 개인 진료정보 및 처방정보 유출속에 의사 및 국민들의 인권에 매우 심각한 위해를 가져오는 사안인바, 이에 단체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단체소송을 계기로 의료정보의 법적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의료정보 보호 및 관리에 대한 대회원 및 대국민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단체소송의 대상은 약학정보원과 IMS 헬스코리아이며, 향후 검찰조사 결과에 따라 확대될 수 있습니다.

소송 대리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며, 단체소송 신청은 2013년 12월 26일부터 우선 의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과에 따라 변경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해서는 추후 재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후 2차, 3차의 소송을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손해배상 요구 금액은 의사 1인당 3백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소송참여는 홈페이지와 네이버에 개설된 카페를 통해 진행됩니다. 홈페이지나 카페에 가입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정보유출 피해의 당사자인지 여부는 방문하시면 확인하시는 방법을 안내하오니 우선 홈페이지나 카페에 먼저 가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송에 참여한 회원님들의 신상정보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지며 활동내용도 보안이 유지됩니다.

약학정보원 의료정보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홈페이지

약학정보원 의료정보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

소송참여 : 법무법인 청파(☎02-599-9952)

- 의사회원 6만원, 일반국민 3만원(신한은행 140-010-304073)

www.lawfirmcp.kr

<http://cafe.naver.com/lawfirmcp>

의사들부터 시작하는 회원소송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유출대상자의 정보가 검찰에서 제공되지 않는 상황(수사가 종결되어도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 있음)에서 자체적 DB 구축속에 향후 일반인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의료정보보호특위는 이번 단체 소송 진행을 통해 의사들과 국민들에게 의료정보 보호의 심각성을 인식시켜 나감과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의사들만 하는 고비용 의약분업 제도 자체의 문제점까지 공론화 하여 의약분업 폐지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부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병채 제35대 경상북도의회사회장, 83세 일기로 타계



지난 1월 19일(일) 오후 7시, 이병채 전 회장께서 향년 83세의 일기로 타계했다.故 이병채 회장은 1959년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산부인과 전문의를 취득 후 경북의대 외래교수, 대구적십자병원과 부산종합병원에서 산부인과 과장을 거쳐 1976년 포항에서 이병채산부인과의를 개원했다. 포항시의사회 회장, 제35대 경상북도의회사회 회장(1991. 4. 1~1994. 3. 31),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대의원회 부의장, 감사, 고문 등을 역임하셨으며, 근 40여 년 동안 의료계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이재원 원장, 포항시장 출마 선언



이재원 원장(포항)은 지난 12월 5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4년 지방선거 포항시장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포항고와 울산의대를 졸업하고 현대아산병원에서 근무하다 10여년전 포항에서 화인피부비뇨기과의를 개업했으며, 현재 포항시의사회 기획이사과 전국푸른문화현대 이사장, 포항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포항남부초등학교 36회 동기회장을 맡고 있다.

서용덕 경산보건소장, 효석보건의료봉사상 수상



서용덕 경산시보건소장이 25년 동안 농촌보건 의료 발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1월 14일(목) '2013 효석농촌보건의료봉사상'을 수상했다. 소외된 농촌지역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고혈압 자조교실을 300회(6천여 명 참가) 이상 운영하고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지역보건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등 농촌보건 의료 발전에 기여했다.

권영만 원장, '아너 소사이어티' 경북 15호 가입



권영만 원장(의성, 권의원)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운영하는 1억 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에 동참하고 경북 15호 회원(전국 376호)으로 지난 11월 12일(화), 의성군청에서 회원 가입식을 개최했다.

김종홍 병원장, 제19대 안동성소병원장 취임



제19대 안동성소병원 김종홍 병원장이 지난 12월 4일 취임했다. 김종홍 성소병원장은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국립의료원에서 외과장과 교육연구실장을, 국립재활원에서 부이사관으로 외과장을 역임했고 2011년부터는 인천적십자병원의 병원장으로 재임했다.

박래경 병원장, 제18대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장 연임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박래경 병원장이 지난 1월 2일 제18대 병원장에 연임됐다. 박래경 병원장은 순천향의대를 졸업했다. 1995년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외과 과장, 수련부장, 진료부장을 거쳐 지난 해 3월 구미병원장으로 취임해 17대를 병원장을 역임했다.

손경식 원장, 울릉군보건의료원장 선임



손경식 원장이 울릉군보건의료원장에 선임됐다. 신임 손경식 원장은 1975년 경북의대를 졸업했다. 1983년 이후 줄곧 북한내과의원과 누가내과의원 원장과 2012년부터 노아동인(요양)병원장으로 일해 왔다. 근무기간은 2013년 12월 16일부터 2016년 12월까지 3년간이다.

포항시

김 철 연 _ 오천속내과의원
(790-911)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동로 47
T. (054)291-8119 / F.291-8180

조 영 옥 _ 드림연합의원
(791-944)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도읍로 991
T. (054)261-7582 / F.261-7583

조 재 곤 _ 365열린의원
(791-813) 포항시 북구 중앙로 438
T. (054)255-3252 / F.254-3252

경주시

이 은 수 _ 양남정형외과의원
(780-844) 경주시 양남면 양남로 355
T. (054)743-8575 / F.744-8575

임 종 오 _ 신세계마취통증의학과의원
(780-943) 경주시 동성로 58 2층
T. (054)776-7746 / F.776-7747

개원을 축하합니다

(2013년 8월 ~ 2013년 12월)

문경시

소 경 진 _ 연우소아청소년과의원
(745-883) 문경시 매봉4길 22
T. (054)555-8555 / F.555-8555

경산시

송 호 준 _ 참조은이비인후과의원
(712-904)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06
T. (053)853-6788 / F.854-6788

정 승 연 _ 고운의원

(712-905)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92 2층
T. (053)853-5652 / F.853-5653

영덕군

한 윤 수 _ 서울한결의원
(766-815) 영덕군 영해면 예주시장길 43-1
T. (054)734-7778 / F.734-7727

미루병원 · 미루요양병원

(780-806) 경주시 안강읍 화전북4길 8
T. (054)760-0000 / F.760-0014

구미시

장 태 기 _ 장태기드림산부인과의원
(730-927) 구미시 신시로 59
우인빌딩6층 601호
T. (054)457-6699 / F.716-1199

한 영 선 _ 평안의원

(730-320) 구미시 인동중앙로 50
T. (054)472-2302 / F.472-2306

영천시

정 용 원 _ 화남의원

(770-832) 영천시 화남면 천문로 1614-1
T. (054)335-0927 / F.0303-3447-0927

분회 및 병원소식

포항시의사회

제4회 보건단체와 함께하는 독도사랑 음악회 '사랑향기 콘서트'



포항지역 4개 보건단체(포항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와 독도의 용수비대 기념사업회 공동주관으로 지난 12월 1일(일) 오후 6시 30분,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4회 보건단체와 함께하는 독도사랑 음악회 '사랑향기 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이날 콘서트는 오프닝 전체합창으로 'O Mio Babbino Caro'와 'Va Pensiero'를 시작으로 포항시한의사회 한울림중창단의 '친구여'와 'O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포항시약사회는 '님이 오시는지'와 'Soon Ah Will Be Done(흑인영가)'를, 포항시의사회 중창단은 '아버지',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중화반점'을, 포항시치과의사회 그룹사운드(덴포스)는 '모나리자', '낭만고양이', '비와 당신'을 마지막 전체합창으로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해주세요', '초록바다', '크시코스 우편마차'를 엔딩공연으로 화려한 막을 내렸다.

포항모자원서 송년의 밤 행사

포항시의사회(회장 신명준)는 지난 12월 26일(목) 오후, 포항모자원에서 '2013 포항시의사회와 함께하는 송년의 밤'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이 곳을 방문해 희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모자원 가족들과 함께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



5회째 행사는 저년만찬과 기념품(모자원 모든 자녀에게 전달)을, 영일만 동지회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2014년 신년인사회 개최



2014년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돈독히 하고 의료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기 위한 신년인사회가 지난 1월 3일(금) 오후 6시 30분, 웨딩아 이린에서 개최됐다.

이날 신년인사회는 포항시의사회 신명준 회장과 경상북도의사회 정능수 회장, 박명재 국회의원, 박승호 포항시장, 이철규 포항시의회 의장, 의협대의원회 변영우 의장, 본회 대의원회 김광만 의장, 신은식·이원기 고문, 최윤채 경북매일사장 등 많은 내빈과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명준 회장의 내빈 소개와 신년사를 시작으로 분회 정능수 회장을 비롯한 내빈들의 축사가 있었으며, 새해 덕담과 건배사, 새로 전입한 회원의 소개가 있었다. 또한 포항시의사회 중창단의 새해의 여망을 담은 합창공연이 있는 후 회원 상호간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경주시의사회

회칙개정위원회에서 회칙 개정 및 선거규정 제정 논의



경주시의사회(회장 조성범)는 지난 2012년도 정기총회(2013. 2. 19)에서 회칙에 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회칙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회칙 개정 및 선거관리규정 제정 등을 논의하기로 하고 2013년도 제1차 확대이사회(2013. 3. 12)에서 회칙개정위원회를 구성(위원장 이봉구·위원 김장희, 이영삼, 이흥우, 임종섭)하였으며, 지난 10월 30일(수)과 10월 31일(목), 11월 5일(화), 11월 6일(수), 4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다.

외동을 거주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9월부터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경주시 외동을 거주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무료진료로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외동을 거주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는 여러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의 손길로 중국·캄보디아·베트남 등지의 외국인근로자들을 진료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시사와 간담회



지난 9월 24일(화) 오후 6시 30분, 귀하한 정식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시사(지사장 김익종)와 간담회를 갖고 현 의료수가체계 및 건강보험재정 마련 방안 모색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 사회공헌활동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013년도 추계야유회 개최



화창한 가을날과 함께 지난 10월 13일(일), 2013년도 추계야유회가 개최되었다. 전세 버스를 대절하여 회원 및 가족 17명이 참가하여 경북의사회와 함께 등반대회 이후 경주 양남면 소재 주상절리로 이동하여 파도소리길(하서항→읍천항)을 걸으며 완연한 가을날씨를 만끽하였다. 주상절리에서 기념촬영 등을 한 후 감포 고향집으로 자리를 옮겨 바다가 보이는 자리에서 저녁만찬과 함께 회원 및 가족의 소회를 나누는 시간과 행운권 추첨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였다.

2013년 경주시의사회 송년의 밤 개최



지난 12월 26일(목) 오후 7시, 힐튼호텔에서

2013년 경주시의사회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였다. 이날 본회 정능수 회장을 비롯한 의협 대의원회 변영우 의장, 조성범 회장과 많은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그동안 회원과 가족들이 같고 닮은 장기자랑을 볼 수 있는 작은음악회를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작은음악회에서 서울내과의원 임지훈 원장의 기타연주와 백영수소아청소년과의원 백영수 원장의 색소폰 연주, 축하연주로 남성중창단의 성자들의 행진, 환상속으로, 축배의 노래가 선보였으며, 사랑의소아청소년과의원 임승근 원장의 자녀인 동경 양의 바이올린 연주와 동인내과의원 김대인 원장 가족의 독창과 연주로 송년의 밤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김천시의사회

김천사랑 나눔·봉사(MOU)체결식 가져



김천시의사회(회장 이상식)와 의약협의회, 김천시는 지난 1월 7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천시청에서 지역 내 154개 의원 및 약국 간 '의약인 김천사랑 나눔·봉사 협약(MOU)'을 체결했다.

김천시는 다문화가정, 23세 미만 임신부, 35세 이상 고령산모, 미혼모와 영유아에 대한 대상자 발굴과 추천, 서비스 대상자에게 의약협회의 나눔·봉사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맡고 의약협의회에서는 대상자에게 임신부 산전 검진과 진료예약제, 영유아 임신부 구강검진, 임신부 산후풍 진료 및 치료, 영유아 영양제 지원 등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게 된다.

안동시의사회

자선음악회, 7년간의 여정으로 마무리 안동시의사회(회장 김석근)는 지난 11월 19



일(화) 오후 7시 안동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제7회 안동시의사회 자선음악회'를 개최했다. 올해 7회째를 맞는 이번 음악회는 안동남성합창단 정만복 씨의 지휘로 안동시의사회 MD양상블이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한겨레', '서른즈음에' 등 남성 중창 및 독창을 펼쳤다.

특별공연으로 '오 솔레 미오'와 '넬라판타지아' 등 남성 독창과 영화 타이타닉 주제가 'My heart will go on'의 색소폰 연주를 선보이며 관객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깊어가는 가을밤을 아름다운 선율로 수놓았다. 안동시의사회 MD양상블은 지난 2006년 창단한 이래 이번 무대를 끝으로 7년간의 여정을 마무리하였다.

연말 복지시설 방문 자선음악회 개최



지난 12월 17일(화) 저녁 7시, 유은복지재단을 방문하여 자선음악회를 개최하고 관계자들과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위로했다.

정기총회서 김석근 회장 연임 선출



지난 1월 9일(목) 오후 7시, 안동병원 컨벤션홀에서 201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현 김석곤 회장(인선학문외과의원)을 연임 시켰다.

이날 정기총회는 김석곤 회장을 비롯한 본회 정능수 회장, 권영세 안동시장, 안동 지역 종합병원장 등 많은 내빈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2013년도 회무 보고와 결산보고를 이의 없이 받아들이고 2014년도 신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안을 확정지었다.

구미시의사회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 개최



구미시의사회(회장 김학근)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건강증진 위해 지난 10월 27일(일) 금오산에서 회원 및 가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등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등반대회는 바쁜 진료실의 고단함을 잊고 생활을 재충전의 기회로 삼아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심평원 대구지원과 간담회

지난 10월 1일(화) 오후 1시, 심평원대구지원과 상견례 겸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건강증진과 건강보험의 질 향상을 위한 관련정보를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향후 의료기관과의 상호협조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영천시의사회

회원 친선골프대회 개최



영천시의사회(회장 이종형)는 쌀쌀한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1일(일) 오전 7시 10분, 인터볼고C,C에서 친선골프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골프대회는 영천시의사회 이종형 회장을 비롯하여 본회 정능수 회장 등 16명이 참석하여 개최되었으며, 정능수 회장은 최근의료현안 설명과 더불어 전국 의사대회 개최와 더불어 많은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였다.

상주시의사회

다출산장려를 위한 육아용품 전달



상주시의사회(회장 김원기)는 지난 12월 24일(화) 상주시보건소에서 관내 저소득 및 다자녀 가정 15가구를 대상으로 총 20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상주시의사회에서는 김원기 회장과 신범식 총무이사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매년 지역사회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성금기탁을 하고 있다.

경산시의사회

2013년도 가을야유회 개최



경산시의사회(회장 김종영)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지난 10월 20일(일) 오전 9시 30분, 영천 은해사 일원에서 회원 및 가족 가을야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야유회는 회원 및 가족, 보건소 직원 등 35여명이 참석하여 영천 은해사 주차장을 출발하여 인종태실과 운부암을 거쳐 오는 약 3시간의 산행으로 진행되었으며,

인근 식당에서 점심식사 후 율동리로 뒤돌아 이 행사를 가졌다.

송년의 밤 개최

지난 12월 10일(화) 오후 7시 30분,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김종영 경산회장, 최영조



경산시장 등 많은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2013년도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김종영 회장은 유공회원과 대내외 인사에게 표창을 전달하였으며, 특히 경산지역에서 30년간 개원하여 지역민의 건강을 살핀 김홍웅(대구의원), 조영철(파티마내과 의원) 회원에게 감사패와 경산 최영조 시장에게 이웃돕기 성금으로 100만원을 전달하였다.

이어 장재혁 부회장은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의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발표하고 전국 의사결기대회에 많은 회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네팔서 해외의료봉사



동국대학교경주병원(병원장 이동석)은 지난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대한불교조계종 마하이주민주인지원단체협의회(상임공동대표 도제) 주관으로 네팔 카트만두와 무데마를 등에서 의료 봉사활동을 펼쳤다.

'나마스떼 네팔&코리아'를 슬로건으로 진행된 행사에는 이경섭 교수(비뇨기과)를 단장으로 병원법당 무구 스님을 비롯한 9명의 봉사단이 참가해 현지 주민 1,800여

명을 진료했다. 함께한 20여 봉사단원들은 화장실 및 학교 등의 시설보수와 생필품, 세면도구, 돋보기, 학용품 등을 전달했다.

EBM섭생영양센터 개소



지난 10월 16일 국제힐링센터 내에 EBM섭생영양센터를 개소했다. EBM섭생영양센터는 몸의 소리,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동서양, 자연의학을 기반으로 심신을 조화롭게 회복시키는 식생활교정 힐링센터이다. 센터에서는 유전체 맞춤 EBM섭생법 지도를 통해 심신을 균형 있게 회복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센터장 허봉수 박사는 “질병을 잡는데 있어, 가지고 태어난 자기 유전자적 특성에 모든 음식물의 종류나 생활환경 조건을 맞추면 건강해 질 수 있다.

고유의 개성 유전자 특성을 찾아 가는 것이 온 우주가 다 같이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를 통하여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주)현대HL 동국대경주병원에 나눔기금 전달



(주)현대HL는 창사 20주년을 맞아 사회사업 후원금 2백만원과 직원들이 모은 헌혈증 112매를 동국대경주병원에 전달했다.

경주시 외동읍에 소재한 (주)현대HL은 자동차용 램프 생산업체로 “세상을 빛나게 만드는 기업”이라는 미션 아래 직원 모두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 속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이번 후원금은 저소득층 아동지원 사업 수혜자 2명에게 의료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심장혈관센터 확장 이전 개소식



지난 12월 6일 심장혈관센터 확장 이전 개소식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2000년 경상북도 최초로 심장혈관촬영기를 도입한 동국대병원은 급성심근경색증 및 협심증 환자에게 그물망시술을 비롯한 각종 시술을 약 3천례 시행하는 등 심장질환 치료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당일 심장혈관센터에 새로 도입한 최신식 심장혈관 촬영기를 비롯한 심장혈관내 초음파, 심장혈관내 압력측정철선을 이용한 다양한 시술이 진행되며, 오후 4시 부터는 전국의 유명 대학병원 심장내과 의사 20여 명이 참석하여 최신 심장혈관질환에 대한 열띤 학술대회를 진행했다.

현재 나득영 교수 등 3명의 심장 전문의가 심장질환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30분 이내 조치가 가능하도록 24시간 응급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안동 병원 '교정의료와 형 집행' 주제 세미나 개최



5개소의 교정기관이 있는 경북북부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정의료와 형 집행' 세미나

가 지난 11월 27일(수) 오후 6시부터 안동병원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안동병원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과 의성지청, 경북북부 교정기관은 교정의료체계와 효율적 진료, 수형자의 형 집행에 대한 의학적 판단과 법률적 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생소한 교정의료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안동병원 강보영 이사장 등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및 의성지청, 경북북부 교정기관 관계자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만진 경북북부제3교도소 의료과장이 '교정의료와 유관기관의 소통'에 대해, 오대건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검사

가 '교정의료와 관련된 형사법상 제 문제', 안동병원 이창영(소화기내과), 이혁기(신경외과), 광동석(혈액종양내과) 과장이 '수형자 진료의 실제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교정의료는 교정기관 수용자들의 건강권 존중과 적절한 진료보장을 위한 의료체제로 국내에서는 생소한 분야로 현재까지 학술 및 연구 활동이 흔치 않았던 영역으로 이번 세미나는 교정기관, 검찰, 병원 종사자가 한데 모여 수형자의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체계, 형집행 관련 법률적 기준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뜻 깊은 행사로 국내 교정의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적십자사 제30대 강보영 회장 취임식



지난 11월 14일(목)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4층 강당에서 경북적십자사 제30대 강보영 회장이 취임식을 갖고 3년 임기를 시작했다. 강보영 적십자사회장(안동병원 이사장)은 안동 출생으로 경북중학교, 경북고등학교, 계명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제기 보건의료정책

최고관리자과정, KAIST 제2기 최고지식경영관리자과정(CKO) 등을 이수했으며, 한국 의료재단 연합회장,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의료법인 안동의료재단 안동병원 대표이사, 서울대학교 공대 최고산업전략과정(AIP) 총동창회장 등을 맡고 있다.

경북닥터헬기, 100번째 생명을 구하다

경북지역 중증응급환자 긴급이송을 위해 2013년 7월 5일 임무를 시작한 닥터헬기가 운항 140일만에 100번째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11월 21일 오전, 경북 영주에 사는 권모씨(71세)는 의식저하 증상으로 119를 통해 영주기독병원으로 후송됐다. 의료진은 뇌출혈을 진단하고 안동병원 항공의료팀으로 닥터헬기 출동을 요청했다. 앰블런스로 30여분 걸리는 거리지만 닥터헬기로 10분만에 안동병원 경북권역응급의료센터에 도착한 환자는 응급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하고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 닥터헬기는 경북 전역에 출동하며,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탑승해 도착과 동시에 치료를 시작하고 항공이송 중에도 병원과 교신하며 병원 의료진과 장비를 대기시켜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큰 도움을 준다.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유해가스노출 환경보건센터' 개소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병원장 박래경)은 대구·경북지역 최초로 환경부 지정 유해가스노출 환경보건센터가 문을 열었다. 지난 10월 28일(월) 개소식을 가진 환경보건센터는 불화수소가스 등 유해가스 누출과 주민건강의 인과관계 조사와 연구, 건강문제 모니터링, 주민건강교육, 건강증진 홍보 등의 업무를 맡는다. 이 병원 환

경보건센터는 우극현 순천향대 구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가 센터장을 맡고 사무국,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임상의학연구팀, 환경연구팀, 정보관리팀으로 나눠 운영한다.

이날 개소식 이후에는 최경희 국립환경과학원 연구부장과 임현술 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 홍윤철 서울대 환경보건센터장, 양원호 대구가톨릭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화수소 누출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도 열었다.

찾아가는 이동식 종합병원



지난 11월 9일(토), 의성군 단북면 이연마을에서 질병 진단 및 치료를 돕는 새로운 개념의 찾아가는 이동식 종합병원을 열었다. 이동식 농업종합병원은 영농전문가와 의료진이 참가하는 농촌 맞춤형 봉사활동으로 농촌진흥청, 의성군 농업기술센터, 경북 농업기술원과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날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은 외과 전문의인 박래경 병원장도 참여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폈다. 각 질환별 전문의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약사 등으로 구성된 30여명의 의료지원팀은 소화기질환, 근골격계 질환, 척추질환 등의 진료와 혈액소변검사, 흉부 X-ray, 초음파, 골밀도 검사 후 의약품 제공과 더불어 농업인 건강예방 교육도 실시했다.

'환자안전·감염관리의 날' 행사

지난 12월 2일부터 6일까지 '환자 안전 및 감염관리 주간 행사'를 개최했다. 진료 전 정확한 환자확인 및 철저한 감염관리를 통해 환자에게 보다 안전한 진료를 제공하고 의료인 감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행된 행사로 닷새간 병원내에서는 손씻기 체협,

손위생 다짐 트리, 환자 안전 포스터 전시, 감염 관리 퀴즈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해마다 환자안전과 감염관리 주간 행사를 개최하여 감염관리의 시적인 손씻기를 내외부에 홍보 하고 있으며 병원장을 중심으로 매일 환자 안전 라운딩을 실시해 개선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병원 환경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문경중앙병원

장애인복지관과 업무협약



문경중앙병원(병원장 이상일)과 문경시장 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11월 5일, 장애인 건강 증진 및 장례문화서비스 향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문경중앙병원은 복지관 이용자 및 직원들에게 건강정보 제공, 건강 강좌 등 장애인건강 증진사업을 지원하며 장례식장 이용 시에도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대구·경북 부인내시경 연구회

제59회 대구·경북 부인내시경 연구회 학술모임



대경부인내시경연구회(회장 이윤순)는 지난 12월 4일 대구 노보텔 8층 버건디홀에서 학술 모임과 송년회를 개최하였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지역에서 복강경 수술을 하시는 다수의 선생님들이 모여서 발표와 토론을 하였으며, 이어 열린 총회에서 2014년 3월부터 대구·경북부인내시경학회로 명칭을 바꾸어 모임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병채(李秉埰) 회장님 영전에



이병채 회장님!

아직도 그 능숙하고 매사에 철두철미하신 솜씨를 보여 주시던 선배님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쉽사리 우리 곁을 훌쩍 떠나셨습니까.

얼마 전 호흡기 질환으로 영남대학교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포항성모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하여 곧 회복되어 퇴원하시기를 바랐는데 폐렴이 악화하여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곧 설날이 다가오는데 선배님의 비보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생자 필멸(生者必滅)이라 하지만 이렇게 쉽사리 우리 곁을 떠나실 줄 몰랐습니다.

선배님은 1931년 1월, 경북 영양군 석보면 원동리에서 출생하셨으며, 향년 83세이십니다. 6.25동란 중 대구 대륜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1959년 경북의대를 졸업하셨으며, 모교에서 산부인과 전문의와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시고 의과대학 외래교수를 역임 하셨습니다. 그 후 대구적십자병원과 부산종합병원에서 산부인과 과장으로 재직하시다가 1976년경 포항으로 오시어 '이병채산부인과의원'을 개원하여 많은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포항에 개업하신 후 각종 사회단체에 가입하였으며, 의사회 임원으로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1982년도 포항시의사회장을 맡을 당시 적출물 처리는 상이군경협회에 위탁 처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위탁 처리하던 상이군경협회 직원이 적출물을 불법처리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검찰에 고발되어 당시 회장인 이병채 회장님이 검찰에 조사를 받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적출물을 처리하는 직원이 소각하지 않고 소각비를 아끼려고 불법매립한 것이 발각되어 지방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출물을 직접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회에서 직영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그 당시 부회장이던 저는 이병채 회장님과 적출물 처리조례 및 수가 등을 결정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여 수년간 원만히 처리하였습니다. 당시 전국에서 의사회가 직접 적출물처리회사를 경영하는 유일한 의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회원 수가 많아지고 적출물처리 범위가 커짐에 따라 지금과 같은 회사로 위탁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적출물 처리규정을 정하는데 얼마나 세심하고 조리 있게 규정집을 만드셨는지 모두 놀랐습니다.



신은식 원장
신장형외과의원(포항)

1991년 3월, 경상북도의사회장 선거에 대의원 투표로 두 분이 출마하여 치열한 경선

우리사회에 큰 업적을 남기시고 우리들 곁을 떠나셨지만 그 깊은 은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셔서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 편히 쉴 틈도 없이 일해 오셨습니다.
밤낮을 잊으시면서 활동하셨던 모든일은 접어두고 편안히 영생하소서

으로 인해 경북 전역의 대의원을 찾
아다니시며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
여 이병채 회장님이 무난히 당선되
어 제35대 경북의사회장으로 회무
무에 전력을 기울이셨습니다. 중앙
에서도 대한의사협회 감사로서 3년
동안 예리한 통찰력으로 활동하셨
고, 1994년 4월, 대한의사협회 대의
원회 부의장으로 활동하시면서 법
정관 분과위원장으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명사회로서 회의를 이끌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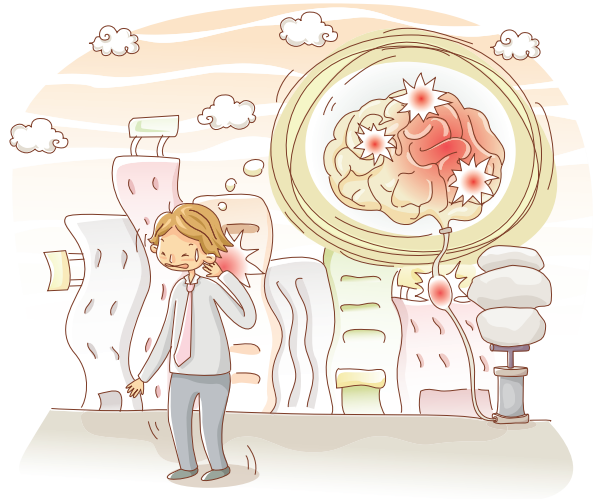
어느 여름날 영덕군 영해면 창수천변에서 영덕 김찬우 국회의원과 이시형·이경수·김병
만·이병채 선배님들과 같이 달빛이 휘황찬란한 저녁 시냇가에 앉아 천렵으로 잡은 고기를 구
워놓고 낭만을 즐길 때도 있었으며, 청송 신선계곡에서 맑은 물에 수영을 즐기던 모습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천렵으로 잡은 고기를 요리할 때는 선배님의 특이한 요리 솜씨로 튀김과 매운
탕, 소금구이 요리 등은 지금 생각만해도 군침이 돌듯합니다. 오일회에 들어오셔서 일본나라
교토 등으로 여행도 다니시고 광까지도 다녀왔습니다. 국내 여러 곳을 다녔으며 김찬우 국회
의원과도 같이 부곡호텔에서 노래방을 독점하여 멋진 노래도 하셨지요. 곡목은 항상 '악새
슬피우는'으로 목청을 올렸지요. 이때가 부산도시고속도로가 처음으로 개통되어 여러개의 터
널을 지났던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선배님은 우리사회에 큰 업적을 남기시고 우리들 곁을 떠나셨지만 우리들은 그 깊은 은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유족으로 유향자 엘리자벳 사모님과 슬하에 SK주식회사 부장인 아들 종
섭, 딸 혜승 글라라와 손자 3명을 두셨으며, 모두 사회에서 선두주자로 활동하고 있고 건강하
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선배님은 그 동안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셔서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 편히 쉴 틈도 없이 일해
오셨습니다. 밤낮을 잊으시면서 활동하셨던 모든일은 접어두고 편안히 영생하소서.

2014년 1월 22일
신은식 애도

편두통성 현훈의 임상양상과 감별진단



편두통은 주기적인 일측성 및 박동성의 두통과 자율신경계 이상을 특징적으로 보이는 대표적인 일차성 두통이다. 편두통성 현훈의 경우 청력증상 없이 나타나는 재발성 어지럼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신경과에서 마주치는 경우가 많으나 발병원인과 임상양상에서 메니에르병과의 연관성으로 인해 이비인후과 어지럼클리닉에서 마주치는 경우가 있게 된다. 치료적인 관점에서 두통에 맞출 것인지 내림프수종에 맞추어야 하는지 고민이 있게 된다.

1. 편두통성 현훈의 진단

편두통성 현훈에 관해 과학적으로 체계적인 보고를 시도한 것은 약 1980년대이다. 현재까지 진단 기준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2001년 Neuhauser등이 제시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 1) 중등도 이상의 일과성 전정 증상(회전성/체위 변환성 현훈, 본인이나 물체가 움직인다고 느끼는 착각, 두위 움직임에 의해 악화),
- 2) 국제두통학회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 편두통,
- 3) 적어도 두 번 이상의 현훈 발작 동안 다음 증상 중 하나 이상 동반 즉 편두통성 두통, 빛 혐오증, 소리 혐오증, 시각 혹은 다른 전조 증상
- 4) 적절한 검사 소견을 통해 어지럼의 다른 원인이 배제.

이와 같은 네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명확한 편두통성 현훈(definite migrainous vertigo)으로 진단하였다.

2. 편두통성 현훈의 임상양상

편두통성 현훈은 어느 나이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편두통의 유병률이 여성에게서 높듯이 편두통성 현훈 또한 여성에서 남성에 비해 적게는 1.5배에서 많게는 5배 정도 유병률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 300명을 대상으로 한 국내연구에서 시행한 분석에 따르면 여성 환자가 남자에 비해 4.3배 더 많았다. 편두통성 현훈이 발생하는 시기는 주로 30~40대로 알려져 있다.



최호석 교수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이비인후과

따라서 편두통의 발병(통상 10대나 20대 초반)이 선행하고 현훈은 한참 후에 뒤따라 나오는 양상인데 이런점들이 편두통성 현훈의 진단 시 편두통과 현훈 사이의 연관 관계를 모호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드물게는 편두통과 현훈의 발생 시기가 같거나 오히려 현훈이 선행하는 경우도 보고되어 있다. 편두통성 현훈 환자들이 호소하는 주된 증상은 자발성 현훈이거나 또는 체위변환성 현훈 양상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훈의 지속 시간은 수 초에서 24시간 이상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기존 Neuhauser와 Lempert의 보고에 의하면 수 초에서 5분 미만(18%), 5분에서 60분(33%), 1시간에서 24시간(21%), 24시간 이상(27%) 등의 다양한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편두통성 현훈 환자들은 현훈이 있을 때 편두통성 두통이 동반되었으나(87~94%), 두통 없이 현훈만 나타나는 경우(6~13%)도 찾아볼 수 있었다. 두통외에 현훈에 동반되는 편두통 증상으로는 광과민증(36~70%), 소리 공포증(46~64%), 시각 및 기타 전조증상(22~36%) 등이 있다. 청력 감소와 이명은 편두통성 현훈의 주된 증상은 아니지만 종종 보고되고 있는데, 국내 다기관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각증상은 모두 29%에서 동반되어 비교적 높은 빈도를 보였다. 그러나 반복적인 현훈과 청각증상이 있는 환자에서 의미있는 청력소실이 동반된다면 항상 메니에르병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3. 편두통성 현훈 환자와의 감별진단

1) 양성 재발성 현훈/재발성 전정병증(Recurrent vestibulopathy)

청각증상, 다른 신경학적 이상 없이 반복 현훈을 보이는 환자들의 분류에 있어 이들 진단명이 사용되어 왔으며, 이들 중 상당 수가 편두통성 현훈, 환자들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 환자의 모든 경우가 편두통성 현훈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편두통성 현훈 진단에 맞는 환자들은 편두통성 현훈으로 진단을 명확히 하고, 이외의 환자들에 대한 관련 기전과 치료 및 예후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소아기 양성 돌발 현훈

소아에서 반복적인 현훈 발작이 발한 및 구토를 동반하며 대개 수분 후 정상으로 되돌아와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다시 놀이에 열중한다. 일부 소아는 빙빙도는 어지럼을 부모에게 표현하지만 대부분은 자신이 경험한 이상한 증상이 빙빙도는 어지럼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부모에게 표현하지 못한다. 뇌파검사 및 뇌 자기공명영상 소견상 모두 정상 소견을 보이며 소아기에 나타나는 간질과의 감별을 요한다. 대부분은 7~8세 이후 증상이 소실되거나 일부에서 증상이 지속되며 대부분이 전형적인 편두통 발작을 경험하였다.

3) 메니에르병

1861년 메니에르가 처음으로 이 질환을 기술할 당시 그는 메니에르병과 편두통은 반복적인 현훈의 흔한 원인 질환이고 두 질환이 한 환자에서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비인후과의 어지럼클리닉을 방문하는 환자들 중 난청증상을 한번이라도 호소하면 메니에르증후군으로 진단하고 그들중 감별진단을 위해 두통동반여부를 확인하여 편두통성 현훈을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점이 두 질환의 임상 양상의 유사성에 따른 단순히 진단 기준의 중복에 의한 것인지, 두 질환의 발병 기전의 근본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현재 까지도 이들 두 질환을 확진할 수 있는 특이적인 진단 방법이 없다는 점도 두 질환간의 분명한 관계를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된다. 메니에르병에서 편두통의 빈도는 일반인구에 비해 2배 정도 높으며, 편두통을 가진 환자에서 메니에르병의 빈도(7.5%)가 일반인에서의 메니에르병의 유병률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메니에르병과의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가설로서 편두통의 발병 기전의 하나인 혈관 연축이 내림프관 및 내림프낭에 허혈성 손상을 일으켜 서서히 내림프액의 흡수 장애가 일어나며 이로부터 수년 후 메니에르증후군의 일종인 지연성 내림프 수종을 일으킨다는 주장이 있다.

4) 양성 돌발 현훈

양성 돌발성 두위현훈은 현훈의 가장 흔한 원인 질환 중의 하나이며, 편두통 환자에서 관찰되는 현훈의 원인 질환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Neuhauser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편두통과 어지럼을 가진 75명의 환자에서 단지 19명만 최종적으로 편두통성 현훈으로 진단되고 나머지 환자들은 다른 신경이과적 질환으로 진단되었으며 이들 중 가장 흔한 질환(28%)은 바로 양성 돌발성 두위현훈이었다.

[결론]

이비인후과의 어지럼클리닉을 방문하는 환자들 중 난청증상을 한번이라도 호소하면 메니에르증후군으로 진단하고 환자에게 설명할 수 있으나 그들중 감별진단을 위해 두통동반여부를 확인하여 편두통성 현훈을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 편두통성 현훈의 국제적인 진단 기준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로 병력 청취를 근거로 하고, 다른 질환을 배제하는 과정을 통해 내려지는 진단이라는 제한점이 있기는 하나 편두통의 경우 대증요법의외에 트립탄 계열의 약물에 효과가 있으므로 어지럼환자의 감별진단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안성기 외 2인. 편두통성 현훈의 임상 양상 및 치료에 대한 다기관 연구. Res Vestibul Sci 2009; 8:122-129.
2. 정성혜 외. 편두통성 현훈의 진단과 감별진단 Res Vestibul Sci 2012; 11:45-50.
3. 정현정 외. 편두통성 현훈의 임상양상 및 신경이과적 소견 Res Vestibul Sci 2012; 11:1-7.
4. Neuhauser HK. Epidemiology of vertigo. Curr Opin Neurol 2007;20:40-6.
5. Neuhauser H, Lempert T. Vertigo and dizziness related to migraine: a diagnostic challenge. Cephalalgia 2004;24:83-91.

내려놓고 베풀 것인가? 움켜쥐고 지킬 것인가?

- 탄생 200주년 맞는 거장 베르디와
바그너의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 -



2013년 새해는 전세계 오페라 애호가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 해다. 19세기 오페라의 양대 산맥인 이탈리아의 주제페 베르디(1813~1901)와 독일의 리하르트 바그너(1813~1883)의 탄생 200주년이기 때문이다. 올해를 놓치면 또 다시 100년을 기다려야 하기에 어쩌면 금년에는 오페라 애호가에게는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기념 해라고 할 수 있겠다. 예술가는 그저 작품으로만 말할 따름이지만 때로는 그 예술가들의 삶이 작품 못지 않게 큰 울림으로 다가올 때도 있다.

오페라의 종주국인 이탈리아 전통을 계승하고 수호한 베르디와 음악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힌 혁명가 바그너, 두 거장은 태어난 해가 같을 뿐만 아니라 모두 가난한 집 출신에 어린 시절 각각 멘토와 후원자를 만났다는 공통점이 있다. 1813년 5월 22일 중부 독일의 정신적 본향인 라이프치히에서 태어난 바그너는 생후 6개월 만에 아버지를 여의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재혼상대로서 시인이자 배우였던 의붓아버지 루드비히 가이어야말로 바그너의 예술세계의 틀을 형성시킨 정신적 멘토였다. 베르디는 1813년 10월 10일 이탈리아 북부 파르마 공국 부세토의 작은 마을 론콜레에서 가난한 여인숙집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 베르디의 성실성과 재능을 일찌감치 알아 본 고향 유지 안토니오 바레치는 베르디의 젊은 시절을 지탱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고명딸 마르게리타를 베르디와 결혼시켜 베르디에 대한 무한 신뢰를 보여주었다.



유 정우 원장
SJ항성주달달피부과의원(서울)

두 거장은 본격적인 성공작들이 각자의 세 번째 작품(베르디는 <나부코>, 바그너는 <리엔치>)이며 모두 1842년에 초연되었다는 점까지도 묘하게 일치한다. 하지만 그 이후 베르디와 바그너의 삶의 궤적은 완전히 다르다. 솔직히 어떻게 이토록 대조적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다. 베르디는 성공을 거둔 이후 1860년대 초까지는 거의 한 해도 쉬지 않고 성실히 작품을 발표하여 이탈리아 오페라를 더할 나위 없이 풍요롭게 만들었다. 커리어에 있어 그다지 큰 부침이 없었던 것은 특유의 성실성 덕분이었

다. 굳이 따져보자면 현장과 실무자 스타일이다. 그러나 대담무쌍한 전략형 관리자 스타일로 분류할 수 있는 바그너는 예술가가 이끌어가는 사회를 꿈꾸며 1849년 드레스덴 혁명에 몸 담았다가 스위스로 망명하는 신세가 되어 15년 동안이나 고국 땅을 밟지 못하게 된다.

오랜 세월 갈라져 있던 조국의 통일에 있어서도 두 거장의 역할은 대조적이다. 베르디는 자신의 작품 속에 애국심을 자연스럽게 녹여 넣음으로써 19세기 중반 불붙기 시작한 이탈리아 통일운동 '리소르지멘토(Risorgimento)'의 정신적 상징이 되었다. 오페라 <나부코> 중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가라, 내 마음이어. 황금빛 날개를 타고"는 아직까지도 이탈리아 아이들에게 제2의 국가로 대접 받고 있고, 통일 운동에서 베르디의 이름은 "베르디 만세 (Viva VERDI)"라는 구호로까지 쓰였다. 이 구호에서 베르디란 말은 '이탈리아의 왕 비토리오 에마누엘레(Vittorio Emanuele Re d'Italia)'라는 문장의 이니셜로 마치 암호처럼 쓰인 것이다.

반면, 남달리 자기애가 강했던 바그너는 통일에 따른 권력의 변화를 재빠르게 감지하고 그것을 자신의 예술을 지키는 데에 철저하게 이용하였다. 독일의 통일에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남독일 바이에른 왕국의 루트비히 2세로부터 아낌 없는 재정적 지원을 받았던 바그너는 1871년, 북독일의 프로이센 왕국을 중심으로 통일이 이루어지자 자신의 예술성전을 지을 곳으로 바이에른의 수도 뮌헨과 신생 독일 제국의 수도인 베를린의 중간에 위치한 소도시 바이로이트를 선택하였다. 바이로이트는 영토 상으로는 바이에른의 땅이었지만 프로이센 왕가이자 신생 독일제국의 황가가 된 호엔촐레른 왕가의 연고가 있는 곳이었다. 결국 바이에른으로부터는 재정지원을 얻고 새로운 실세인 독일 황가의 호의도 얻어내려는 심산이었으니 기회주의자라는 비난을 면키는 어려운 일이다.

두 사람의 예술인생은 마지막까지도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인생 오십 줄에 바이에른의 루트비히 2세로부터 절대적 후원을 얻게 되어 망명생활을 청산하게 된 바그너는 1876년에 드디어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을 창설하기에 이른다. 그는 1882년, 이 축제극장을 위해 마지막 작품 <파르지팔>을 작곡하고 무려 "무대신성제전극"이라는 부제까지 부여한다. 자신의 예술을 향해 기꺼이 경배를 바치게 함으로써 예술을 종교의 반열에 올리려 시도한 것이다. 이 페스티벌은 지금까지도 바그너 예술의 성지로 자리매김하여 매년 '바그너네리안'이라고 불리는 열광적인 순례객들을 불러모으고 있다. 한 편 젊은 시절의 다방한 작품 활동으로 심신이 지친 베르디는 40대에 접어들자 자신의 농장에 칩거하며 세상의 부와 명성으로부터 초연해지려 노력했다. 바그너보다 18년을 더 산 베르디의 마지막 작품은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원작으로 한 1893년작 희극 오페라 <팔스타프>이다.



두 거장의 삶 중 어느 쪽이 옳다고 가벼이 평가할 수는 없으리라.
100년도 안 되는 유한한 인생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치열하게 일구어 낸 결과들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집요하게 지켜내어야만 하는 그 무엇인가도 있게 마련이요,
내려 놓아야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도 있는 법이다.

모든 작품의 대본을 직접 쓴 바그너의 <파르지팔> 1막에서 성배를 수호하는 노기사 구르네만츠는 “여기에선 시간이 공간으로 변한다.”라고 읊조린다. 유한한 시간예술인 자신의 작품을 영구히 지키려 직접 페스티벌까지 만들어 남긴 바그너의 생각을 더할 나위 없이 잘 표현한 대목이다.

반면 베르디의 <팔스타프>의 마지막 장면에서 뚱뚱한 허풍선이 노기사 팔스타프는 이렇게 노래한다. “세상사 모든 것이 다 농담이라네.” 진정 달관의 경지라 아니할 수 없다. 베르디는 19세기의 끝자락인 1899년에 한 가지 더 놀라운 일을 벌인다. 사재를 털어 은퇴한 노음악가들을 위한 양로원(La Casa di Riposo per Musicisti)을 설립한 것이다. 물론 이 양로원은 오늘날까지도 건재하여 밀라노의 숨겨진 자부심으로 여겨지고 있다.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겪어낸 결과로 성공을 거두고 난 뒤부터는 오히려 끊임 없이 내려 놓고 나누려 했던 베르디. 야망을 향한 강렬한 목표 의식을 통해 어렵게 일군 성공을 꼭 움켜쥐고 절대 놓치려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손만대에까지 그 번영을 지켜가려 했던 바그너. 두 거장의 삶 중 어느 쪽이 옳다고 가벼이 평가할 수는 없으리라. 100년도 안 되는 유한한 인생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치열하게 일구어 낸 결과들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집요하게 지켜내어야만 하는 그 무엇인가도 있게 마련이요, 내려 놓아야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도 있는 법이다. 결국은 선택의 문제가 아닐까?



유 정 우 (heribertyoo@hanmail.net)

-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 흉부외과 전문의
- 매주 수요일 예술의 전당 정기 오페라 강좌 “유정우의 오페라 살롱” 진행
- KBS 클래식 FM <장일범의 가정음악> 매주 금요일 출연.
- KBS 1TV <명작 스캔들>, <클래식 오디세이> 출연
- KBS 1라디오 <문화 공감> 매주 목요일 “음악, 도시를 만나다.” 코너 진행
- KBS Cool FM <황정민의 FM 대행진> 매주 일요일 “클래식 52” 코너 해설
- 저서: KBS 클래식 FM 33주년 기념 서적 <행복한 클래식스> 공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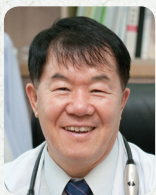
랑탕(Langtang) 기슭에서



가끔 들었던 말과 상상하는 모습은 다르기 때문에 신비롭기도 하고 실망도 한다. 더구나 실제로 보고 들은 경우는 또 다른 모습이라서 적잖이 놀라는 경우가 많다. 지도책이나 지구본을 보면서 느끼고 상상해 왔던 히말라야의 모습이 그런 것 중의 하나다. 막연하게 만년설에 둘러싸인 산맥이나 설인 예티를 상상해 보기도 했다. 우리생활과 색다른 곳이 실제로 지구상에 존재하는지 의아심을 갖기도 했다. 간혹 사진이나 여행자들의 경험담을 듣고 그러보던 모습을 기어이 확인하고도 싶었다. 그것이 바로 네팔 메디칼 캠프(Medical camp)를 시작하게 된 원동력 중의 하나이다.

물론 지난해 몽골에서는 너무도 실망해서 구태여 다시 찾아 보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순수한 열정이 정치나 사회적인 배경으로 뜻하지 않게 방해받을 게 몹시도 싫었다. 그건 미안하나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진료하는 일이 의무적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진정한 휴머니즘은 가장 인간적이고 따뜻한 사람 시는 정을 느껴야 한다. 가는 정과 오는 정을 피부로 느끼고 마음으로 움직여야 한다. 거기에는 아무런 장벽이나 제한이 없다. 국제법이나 정치적인 일보다도 더 우선해야 하는 일들이다. 진정한 휴머니즘의 테두리 안에서는 안 되는 일이 없고 금지하는 일이 없다. 조금도 귀찮거나 거추장스럽다는 생각이 없다.

환자들의 아픔이나 불편함을 경감시킬 수 있는 일은 즐겁고 흐뭇하다. 언제 일주일이나 지났는지도 모른다. 게다가 정말로 환상적인 팀원들의 협력은 그야말로 기대 이상의 효과를 가져다주었다. 이번처럼 호흡이 잘 맞는 경우도 참 드물었다.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답게 열심히 나뭇대로의 일에 열중했다. 현지학생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축구도하고 탁구도 하면서 가장 친진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모른다. 중학생은 정이는 진료할 때 약포지를 싸고 약품을 분류하느라 정말로 힘들어 하는 모습을 면발치에서 자주 보았다. 소아과 정명희 선생님이 그렇게도 진지하게 진료하던 모습이며, 법혜 스님이 땀을 흘리며 약을 싸고 환자들에게 손짓과 발짓으로 설명해주던 모습, 장동호 회장 부부의 시종 웃음을 띠며 정말로 정성이 깃든 모습, 나연이와 유 기자의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보조 역할에 전념을 하는 모습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항상 최측근에서 진행을 맡아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 기념 사업회 심 일수 부장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이종규 원장
연세가정의학과의원(울진)

진정한 휴머니즘은 가장 인간적이고 따뜻한 사람 사는 정을 느껴야 한다.
가는 정과 오는 정을 피부로 느끼고 마음으로 움직여야 한다.
거기에는 아무런 장벽이나 제한이 없다.

정말로 가장 학생다웠던 모습과 나를 깜짝 놀라게 한 건 마지막 날 문화교류가 있던 날이다. KD Band 단장님의 역할은 메디칼 캠프를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 가는 중요한 역할이다. 나는 그분의 헌신에 다시 한 번 감사한다.

많은 고심 끝에 지난번 답사 여행 때처럼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마지막 배경 음악으로 요청했다. 가장 한국적이고 널리 알려진 그의 음악은 어떤 것보다도 훨씬 출중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Udaya 교장선생님은 '젠틀 맨'까지 준비를 했다. 분명 '사이'의 음악이건만 나는 아직 잘 알고 있지를 못했다. 그때 은정이는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흥겹게 춤과 노래로 독무대를 장식해 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음악에 맞춰 현지학생들과 열광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학교 운동장은 물론 울타리 너머의 학부형들까지도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며 열광했다. 태극기수를 자처한 고등학생 현창이의 말 춤 솜씨는 단연 무대를 환상적으로 만들었고 이에 맞춰 500여명의 학생들은 운동장과 무대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런 것이 우리의 힘이고 이런 모습이 보고 싶어서 다시 온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대금, 색소폰, 트럼펫 그리고 클라리넷연주에 맞춰 히말라야 기슭의 산골짜기 작은 도시에서 우리들 13명은 정말로 목청을 가다듬고 우렁찬 목소리로 애국가를 4절까지 제창했다. 콧잔등이 시큰한 그때 또한 잊지 못할 순간이다. 아주 짧은 시간에 우리는 네팔인들이 가장 애창하는 민요를 배웠다. 그리고 식당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함께 불렀다. 놀라워하는 그들의 모습은 우리들 모두의 가슴을 한껏 부풀게 만들어 주었다. 참으로 기분 좋은 모습이었다.

예정에 없는 특별한 만찬도 있었다. 비록 작은 도시지만 도시를 대표하는 인사들과의 만찬은 아주 기억에 남는 일이기도 했다. 전·현직 시장은 물론 지역의 유지들과 학교의 선생님들까지 모두 참석했다. 카트만두 대학의 생화학교수와 사회학을 전공하는 교수들과의 환담은 아주 자연스럽고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 양측 인사들을 서로 소개하는 의전행사는 어린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다. 서로간의 관심사를 주고받는 과정 중에 무르익은 정답이 컷전에서 맴돈다.

자기의 혈액형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안심하기도 하고 처음 알게 된 혈액형의 의미를 기억하려는 어린 학생들의 옛된 모습이 또 인상적이다. 맑고 커다란 눈망울을 굴리면서 시종 웃음을 잃지 않고 호의를 표시하는 그들이 오히려 고맙기만 하다.

지역주민들의 진료만큼 절실한 게 또 있을까? 열악한 환경에도 사람에게 주어진 숙제를 마무리하려는 의지에 놀라움과 더불어 경외감을 느끼게 된다. 주어진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는 인류의 모습은 참으로 기록하기만 하다.

네팔은 내년에도 우리를 부르고 있을 게 틀림없다. 아니 다시 와야만 할 약속의 땅이라고 대변하고 있다. 해마다 그들은 우리를 기억하고 다시 오라고 손짓을 할 게 틀림없다. 다시 가서 그들의 차갑지만 따듯하고 거칠지만 정다운 손을 잡고 함께 KD Band의 연주를 들어 보아야 한다.

지난 10여 년간 이런 일을 즐겨 다녔지만 이번만큼은 동기생들이 항상 옆에서 지켜주니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다. 어찌면 함께 했던 그들이 다시는 안 간다고 손사래를 칠까봐 두렵기만 하다.

지난 답사 여행을 함께한 김창대 소장을 잊지 못하고 함께 오지 못했다고 공연한 원망을 들었다. 내년에는 히말라야의 랑땡 만년설 기슭에서 우렁차게 울려 퍼질 KD 브라스 밴드(Korea-Dhulikel Band)의 애국가를 생각하니 벌써부터 흥분되기 시작한다.

답사 여행을 자처했던 김창대 소장, 이번에 동행하면서 고락을 함께 한 장동호 회장과 안병관 춘장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더불어 관심을 갖고 다방면으로 지원을 해주셨던 KD 24(경동고등학교 24회 동기 동창회)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독도수호 궐기대회를 진행하며

지난 10월 24일 하양의 전통 5일장에 맞추어 병원 환자와 직원들, 지역 사회단체 구성원들과 더불어 '독도수호를 위한 독도 바르게 알기 대구·경북 시도민 궐기대회 및 가두 캠페인'을 진행했다.

하양중앙내과의원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일본이 아베 총리를 필두로 독도 침탈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상황을 분개하던 끝에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맞서는 민족정기를 드높이고자 기획했다. 이날 "확고한 지리적, 역사적 근거나 영토주권적 측면에서 볼 때 독도는 명백히 한국 땅이다. 일본의 '독도는 차국영토 운운'은 근거가 없고 현행 자국법과도 모순되는 억지주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10월25일은 독도의 날이다. 1900년 10월25일 대한제국이 고종황제의 윤허를 받아 울릉도가 관할하는 구역에 울릉전도와 죽도, 독도(석도)라고 공포하여 전 세계에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확인했다(고종칙령 제41호 공포113주년). 그로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은 슬그머니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둔갑시켰고, 얼마 전 아베정권은 일본의무성을 통해 공공연히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게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매달 4·9일은 경산시 하양읍에서 전통 5일장이 서는 날이다. 지난 10월 24일도 갖 수확된 감, 사과 등의 과일과 배추, 무 등의 채소가 놓여 있는 노전에는 오랜만에 만나는 장보러 나온 이웃 간의 왁자지껄~! 정답이 넘쳐났다. 독도의 날(25일)을 맞아 '독도사랑운동'을 기획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지역주민들과 시도민들에게 독도수호의지를 알릴 수 있는 날이 하양 장날이라고 판단하여 행사일을 하양장날로 택하였다. 장보러 오신 경산시 하양읍, 진량읍, 와촌면 주민들과 인근 영천시 금호읍, 청통면, 신령면 주민들, 그리고 우리 땅 독도를 사랑하고 독도를 지켜내자는 행사의 취지를 알고 멀리서 달려와 준 다수의 대구·경북 시도민을 포함하여 약 350여명이 하양공설시장 야외무대를 가득 메웠다.

행사장 여기저기에서는 독도사랑 티셔츠를 입은 행사참가자들이 형형색색의 피켓들을 들고 행사취지를 알렸다.

오전 11시 예정된 시간에 맞추어 사회자의 진행으로 행사 시작이 선포되었고, 국민의례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대한독립열사들에 대한 묵념이 있었다. 이어서 공사다망한 가운데 행사장을 찾아주신 각계내빈에 대한 소개가 있었으며 특별히 경상북도의사회 정능수 회장님과 새누리당 대구시당 이영규 사무처장님, 경산시의사회 박일영 직전회장님, 경산시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박영삼 목사님, 최혁준 대



이덕영 원장
하양중앙내과의원(경산)

구시건축사협회 수석부회장, 건강검진 전문기관 KMI 김현숙 대구지사장, 예식전문 오월의정원 정휴준 지사장, 경산시청 이재영 안전행정국장, 강수명 경산시의원 등이 행사장에 함께하여 자리를 빛내주셨고, 흥덕률 대구대학교 총장님은 교내행사로 바쁜 관계로 축하화환으로 행사장을 빛내 주셨다.



내빈소개에 이어 경상북도의사회 정능수 회장님의 축사가 이어졌다. 축사에서 먼저 행사장에 참석한 내빈 및 참석자들에게 저를 소개하면서,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데 불철주야 매진중이며, 진료현장의 여러 어려운 현실을 경험한 개원의사로서 의사들이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소신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큰 힘을 보태주기를 진정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 BBS중앙연맹 부총재로서 불우한 소년 소녀 가장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앞으로 더욱 많은 의사들이 환자들의 건강을 성심껏 지켜드리고, 사회에 나아가 보다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자고 하였다. 이어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의무성 명의로 인터넷 공유사이트인 유튜브에 수 일전 공개했다는 뉴스를 소개하면서, 수년전 시마네현의 지방정부 및 의회에서 주장하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이제는 일본 중앙정부에서 조차 주장하며 독도침탈야욕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는 통탄할 시점에, 독도 수호를 위한 독도 바르게알기 대구·경북시도민 쉼기대회 및 가두캠페인 행사를 기획하여 시도민들의 독도수호의지를 하나로 엮어주는 일은 시의적절하고 지극히 애국적인 모습이라 여겨지며, 무척 기쁘고 수고로움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낸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다.

일본 오사카 출신으로 1999년 일본에서 한국으로 시집와 5자녀를 둔 이중국적의 이와타 요시코씨는 격려사에서 "일본에 있을 때 독도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은 다케시마라는 이름뿐이었다. 한국에 건너와 보니 어린아이들 조차도 가수 정광태가 불렀던 국민가요 '독도는 우리땅'을 애창하고 가사를 외울 만큼 독도에 관심이 많았다. 이처럼 독도의 주인은 독도를 더 많이 사랑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일 것"이라며 "아이들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면 더 흐뭇해진다"고 말했다. 이날 이와타 요시코 씨는 독도에 대한 애절한 사랑을 담은 노래 '홀로 아리랑'을 불러 행사 참가자들로부터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번 행사의 취지와 독도가 한국땅이 명백한 이유들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행사참석자들은 '다케시마 웬말이냐', '독도는 우리땅', '독도사랑 나라사랑', '군국주의 망령 아베는 물러가라', '일본은 역사왜곡을 사죄하라' 구호를 복창하였고, 가수 정광태가 불렀던 국민가요 '독도는 우리땅'을 다

Korea
Dokdo

지난 10월 24일 하양의 전통 5일장에 맞추어 병원 환자와 직원들, 지역 사회단체 구성원들과 더불어 '독도수호를 위한 독도 바르게 알기 대구·경북 시도민 쉼기대회 및 가두캠페인'을 진행했다.

함께 부르며 하양공설시장 야외 무대에서의 1부 행사를 마쳤다.

1부 행사를 마친 참가자들은 공설시장을 출발해 조산천을 따라 금락교를 거쳐 하양중앙내과 앞을 지나 공설시장으로 되돌아오는 독도사랑 가두 캠페인을 끝으로 이날 행사를 마쳤다. 독도



사랑 티셔츠를 입고 큰소리로 구호를 외치며 가두캠페인을 벌일 때 전통장날에 노전에서 장사하시던 수많은 분들이 박수를 보내고 함께 덩실 덩실 몸짓을 하며 행사에 동참해 주었다. 노전에서 장사하시던 송윤수씨는 "일본놈들이 독도를 날로(날것으로) 집어 삼키려 해서 속으로 울화가 치밀어 오르던 마당에 참으로 뜻있는 일을 대신 해주어서 고맙다"며 격려를 해주기도 하였다.

행사에 참여했던 김영창씨 또한 "이번 행사에 참여하고 직접 거리캠페인을 하면서 독도사랑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되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파하며 독도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을 갖겠다"고 말하며 성공리에 행사를 마쳤다.



인연(因緣)



불가(佛家)에서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옷깃만 스쳐도 역겹의 전생에서 비롯된
두 사람의 인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환자를 만났었지만 그 중에서도 각별한
인연이 생각나는 두 환자를 소개해 보려 합니다.

제1화

1986년의 추석날은 마침 내가 정형외과 1년 차 당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공휴일의
동산의료원 응급실은 온갖 환자와 보호자들로 하루 종일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오후시간이 지나가고 있을 즈음 30세 가량의 그가 실려 들어왔습니다.
한쪽 대퇴 골절, 양측 경골 개방성 분쇄 골절 상태로 바지가 온통 피범벅이 되어 너털너털
하게 찢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시골집에서 차레를 지낸 후 오토바이를 타고 큰길로 나서
다가 차와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양측 하지의 개방 창이 너무 심하고 뼈 조각들이 피부 밖
으로까지 빠져 나와 있었습니다. 이가 갈리는 듯한 애절한 신음소리와 일그러진 그의 얼
굴을 무시 한 채 최대한 빠른 손놀림으로 뼈조각들을 밀어 넣고 대충 위치를 맞춰서는 양
다리에 장하지 석고 부목을 땀습니다. 골반 쪽에도 상처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팬티를 잘
라야 했습니다. 혼자말처럼 작은 소리로 그에게 나중에 팬티를 사주겠다고 하면서 그의
팬티를 잘라내고 환의로 갈아입혔습니다. 그리고는 응급 수술을 위해 그는 수술실로 실
려 갔습니다. 여러 차례 수술로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고 골유합이 진행중인 상태였던 그
는 기끔 나와 마주칠 때 마다 웃으면서 팬티를 사달라고 졸랐고 나는 걸을 수 있을때 사주
겠다고 약속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는 집 가까운 병원으로 전원
을 가게 되었고, 나의 정신없이 바쁜 생활로 말미암아 그와의 인연도 약속도 자연스럽게 까
맣게 잊고 지냈습니다.

18년 후, 안동에서 개원한지 11년 되었을 때 그가 우연히 다시 왔습니다. 중학생 아들이
운동하다가 다쳐서 보호자로 따라왔다가 그가 먼저 나를 알아본 것입니다. 혹시 옛날에
환자에게 팬티를 빗진 적이 없느냐며 양쪽다리의 상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상처를 보
고서야 나도 그를 기억해 낼 수 있었습니다. 심하게 다쳤다고 믿기 어려운 정도로 건강하
게 지긋이 나이든 모습이 너무나 반가웠고 가슴이 뿌듯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잊
혀질 뻔 했던 팬티 빗도 갚았습니다. 요사이도 가끔씩 병원에 들러서 씨익 웃어주고 가는
그를 생각하면서 인연의 귀중함을 되새겨봅니다.



최현욱 원장
등산정형외과의원(안동)

불가(佛家)에서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옷깃만 스쳐도
억겁의 전생에서 비롯된 두 사람의 인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2화

25년전 레지던트 3년 차 때였습니다. 50대 후반인 그의 왼쪽 손목은 나무 자르는 톱날에 완전 절단된 채 우리병원으로 이송 되어왔습니다. 손○○교수님 집도하에 새벽 1시부터 아침 10시까지 9시간 동안 밤을 꼬박 새우면서 요골 및 척골 내 고정, 정맥 및 동맥, 건, 신경 등을 차례로 복원 하였습니다. 다행히 접합술은 성공이었습니다. 마침 내가 그의 주치의였습니다. 매일 조금씩 회복되어가는 상태를 확인하면서 그와 나는 같이 즐거워했습니다. 치료가 채 끝나기 전에 그는 집 근처의 병원으로 전원 되어갔습니다.

4년 후, 나는 안동성소병원 정형외과장으로 수술실에서 한창 수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응급실에서 왼쪽 수부에 심한 압케손상 환자가 왔는데 무조건 대구동산병원으로 보내 달라며 보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대구동산병원에 가면 자기 손을 살릴 수 있는 선생이 있다고... 나는 수술 하다고 수술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급하게 응급실로 내려갔습니다. 그의 손상상태는 분쇄기에 엄지 손가락을 제외한 모든 손가락과 손바닥이 완전히 처참하게 일그러져 있는 상태로, 제 2수지는 어떻게든 살리더라도 다른 부위는 절단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고민을 하며 상처를 살펴보다 환자의 왼쪽 손목에 뺨 돌아 가면서 나 있는 눈에 익은 수술자국이 보였습니다. 그제서야 자세히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4년 전 밤을 새워 가며 손목 접합술을 하였던 바로 그 환자였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벗자 그도 금새 나를 알아봤습니다. 대구동산병원으로 보내 달랬던 것도 내게 수술을 받으면 그의 손을 다시 살릴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로 그랬다고 했습니다.

절단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이 심하다는 설명을 듣고 나서 그는 너무나 허탈한 표정으로 한참 고민하다가 내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나의 집도하에 몇 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와 나의 특별한 인연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 좋은 인연 일까 나쁜 인연일까? 그때 응급실에서 나를 알아보곤 반가워하던 표정과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의 슬퍼해하던 그의 오버랩된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독도에서 변산반도까지

- 제28회 전북·경북 친선모임 참관기 -

여행은 즐겁다. 인생길 자체가 호기심을 찾아 떠나는 여행길이어서 그런가 보다. 특히 오늘은 멋들어진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고, 36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함께 하기에 더 더욱 그렇다. 약간 흐린 초추(初秋)의 날씨가 여행하기에 딱 좋다.

오늘 우리는 전라북도 부안의 변산반도까지 먼 여행을 떠난다, 1987년부터 시작된 28번째의 만남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 동해 바닷가 포항에서 출발한 버스가 정확한 시간에 대구 인터체인지 앞에 도착하였다. 우리 2호차에 탄 30여 명의 회원과 가족들은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서해마다 변산반도를 향하여 신나게 출발하였다.

차가 출발하자 먹거리를 나누어 주고 이어서 장재혁 경북의사회 기획이사의 사회로 회원과 가족의 소개가 있었다. 28회를 개근하신 신은식 고문님 부부부터 차례로 자기소개와 한 말씀씩 하였다. 모두 지도자답게 말을 잘 하였고 사모님들은 품위가 있었다. 나는 사회자의 말실수로 줄지에 교도소 부속의원장에서 교도소장으로 바뀌어 버렸다. 진급일까, 강등일까?

경부고속도로 건설의 상징탑이 있는 추풍령 휴게소, 안동에서 출발한 1호 버스와 만났다. 거기에는 우리 경북의사회의 위대한 지도자 정능수 회장을 비롯하여 안동과 구미 등에서 출발한 회원과 동반자 20여 명이 타고 있었다.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따뜻한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잠시 이야기꽃을 피웠다.

다시 버스가 출발하여 고속도로 본선에 합류하였다. 갈 길은 멀고, 여자골프 대회 생중계를 하는 TV화면을 쳐다보는 일 외에는 별로 할 일이 없었다. 캔 맥주와 풍성하게 준비된 안주를 아내와 나누어 먹은 후 의자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었다.

80년대 영호남의 화합에 의사들이 앞장서기 위하여 1987년 6월 포항에서 시작되어 28회나 지속된 전북과 경북 의사회원들의 만남, 특히 내가 참석하기 시작한 1997년 10월 정읍의 내장산호텔에서 개최된 12회부터의 친선모임에 대하여 회상해 보았다. 우리 만남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 동안 얼마나 동서화합에 기여했는지?



정만진 부속의원장
경북북부제3교도소(정승)

우리 만남은 동서화합과 서로간의 이해 그리고 양도 의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우리의 교류가 없었다면 경북 사람이 전북의 여러 곳을 잘 몰랐을 것이다. 우리의 만남이 있었기에 군산 이성당 빵 맛을 알 수 있었고, 전주에서 식당 전체를 빌려 기타치고 노래하며 “이왕이면 더 큰 잔에 술을 따르라.”며 호기를 부리고, 무주 덕유산 꼭대기의 가을 정취를 감

80년대 영호남의 화합에 의사들이 앞장서기 위하여
1987년 6월 포항에서 시작되어 28회나 지속된 전북과 경북 의사회원들의 만남은
동서화합과 서로간의 이해 그리고 양도 의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상하고, 내장산의 단풍을 구경하며, 남원에서 춘향과 이도령을 만나고, 우리나라 최대의 군산 81홀 골프장을 경험하고, 고창 선운사의 상사화를 구경하며 장어 맛을 볼 수 있었다.

만일 우리의 만남이 없었다면 전북의 의사들이 어찌 경주 황남빵의 고소한 맛을 음미하며 보문호를 향하여 시원하게 백구를 날릴 수 있었겠는가? 또한 호랑이 꼬리가 있는 포항에서 아침 해를 바라보며 소원을 빌고, 선비의 고장 안동과 황악산 직지사를 둘러보고, 경산의 영남대에서 잠을 자고 청도의 와인 터널을 구경할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우리의 만남이 없었다면 어찌 전라도에서 1박 2일의 짧은 기간에 동해의 외로운 섬 울릉도를 돌아 보고, 우리나라 동쪽 끝 독도에서 50명 가까운 의사들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치는 모습을 KBS 메인 뉴스 화면에 올릴 수 있었겠는가? 자세히 모르긴 해도 독도에 이렇게 많은 의사들이 한꺼번에 들어간 것은 유사이래 처음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나의 울릉보건의료원장 재직 4년 1개월의 잊지 못할 이벤트였다.

버스가 멈칫하는 순간 회상과 상상의 비몽사몽에서 눈을 떴다. 커다란 버스가 상가가 밀집한 해변의 좁은 길로 접어드는데 저 앞에 “BADA Hotel”이라는 네온간판이 보였다. 드디어 우리는 부안의 변산반도 채석강의 “바다 호텔”에 도착한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곳의 손님이다. 손님맛이도 중요하지만 손님답게 행동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다. 나는 옷매무새를 살펴보고 명찰의 이름이 앞에 오도록 잘 걸고서 버스에서 내렸다.

김주형 회장님과 방인석 의장님을 필두로 길게 늘어선 여러 선생님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 동안 잘 지내셨지요, 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등 한 마디 인사말과 굳게 손을

잡으며 일 년만의 해후(邂逅)에 반가운 웃음이 절로 나왔다. 정감이 오가는 인사를 마치고 호텔 방으로 올라갔다.

일반적으로 행사는 예정된 시간보다 늦어지기 마련인데 오늘은 오후 7시에 예정된 메인 친선행사가 20분 정도 일찍 시작되었다. 이석재 총무이사의 사회로 시작된 행사는 김주형 회장님의 전북 회원과 가족 소개에 이어 환영 인사말을 하였다. 이어서 정능수 경북회장님의 회원 소개와 답사가 있었다. 그리고 변영우 의협 의장님의 축사와 방인석 전북 의장님과 김광만 경북 의장님의 인사가 있었는데, 경북회원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바다호텔을 신축하느라 힘들었다는 방의장의 재치 있는 멘트에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인사말이 끝나고 부안의 특산 빵으로 만든 술을 잔에 가득 따르고 건배를 하였다. 28년 개근의 경북 신은식 고문님을 비롯하여 전북의 장명규, 천희두 원로 선배님들이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건배사를 하셨다. 의협 노환규회장은 다른 행사 때문에 좀 늦게 와서 축사를 하였다.

식이 끝나고 뷔페로 준비된 만찬이 이어졌다. 테이블마다 건배와 정겨운 담소로 행사장은 활기가 넘쳤다. 만찬이 끝나갈 무렵 전북의사회원들로 구성된 9인조 doctor's band 연주가 시작되었다. 바쁜 의사 선생님들이 언제 연습을 했는지 참으로 훌륭한 연주 솜씨를 보여주었다. 경북의 한형원 부회장도 기타와 하모니카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불렀다. 연주가 진행되는 동안 옆방에서는 가족 회원들을 위한 보이차 다도 강의와 시음회가 열리고 있었다.

우리 만남이 언제나 그랬듯이 본 게임보다 2차가 더 재미있다. 밴드의 공연이 끝나고 노래방 기기를 이용한 노래 향연이 이어졌고, 호텔 옆의 조개구이 집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젊은 회원들의 가무가 이어졌으나 보다. 12시 경에 잠자리에 든 내가



잠깐 잠을 깬 때 노래 소리가 들려왔으니 말이다.

채석강의 책장을 넘기는 서해 바다의 잔잔한 파도소리가 내 귀를 간질인다. 이어서 내가 고르고 골라 선택한 스마트폰 알람소리, “Walk in the forest”의 달콤한 멜로디가 흘러나온다. 이제 심호흡을 하고 기지개를 펴며 일어나야 할 시간이다. 세수와 단장을 하고 아침식사를 하러 내려갔다. 식사는 “밥”과와 “죽”과로 나뉘어 있었는데 나는 죽어도 밥파다.

아침을 먹고 방으로 돌아와서 방안에 준비되어 있던 커피를 끓였다. 그리고 나와 아내는 커피 잔을 들고 창 옆 의자에 앉아 비가 내리는 서해바다를 바라보며 여행의 감미로움을 만끽하였다. 외국이 아니더라도, 특급 호텔이 아니더라도 이보다 더 여유롭고 평화로울 수 없었다. 창가에서 폼을 잡아가며 사진도 몇 장 찍었다.

기상청의 예보대로 밖에는 제법 굵은 빗방울이 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이럴 때를 대비하여 나누어 준 우의를 입고 채석강을 보기 위하여 바닷가로 나갔다. 비가 와서 바위가 미끄럽고 여자 분들이 있어 채석강의 절벽을 자세하게 돌아보지는 못하였다. 그래도 달그림자를 잡으려다 물에 빠진 이태백의 감성을 느낄 수는 있었다.

호텔을 출발한 후 해변을 따라 조성된 마실길 3코스를 걸으며 후박나무 군락, 수성당, 그리고 적벽강의 정취를 느끼며 코스모스 들판을 배경으로 단체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능가산 내소사를 둘러보고, 눈을 맞추면 소원 한 가지를 들어준다는 대웅보전의 백의관음보살 좌상과 끝까지 눈을 맞추었고, 한국의 아름다운 숲길 100선에 선정된 전나무 숲길도 걸었다.

관광을 마치고 송별 오찬을 위하여 부안의 명물 ‘해변촌탈아리궁’ 식당으로 향했다. 이곳은 갑오징어 들관 구이가 유명하고 우리도 그것을 먹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환송식이 시작되었다. 양도 회장님의 인사와 몇 분의 건배제외가 있었다. 특히 오늘 내소사 입장료를 책임져주신 정읍아산병원의 문숙란 원장님의 인사와 경북의사회 이원기 고문님의 인사가 있었는데 이원기 선생님은 특별히 백혈병에서 완전히 치유되었다는 판정을 받은 양형식 전임 전북회장님에게 축하의 인사와 박수를 유도하셨고, 양형식 선생님의 감사말씀도 있었다.

송별행사가 끝나갈 무렵 김주형회장이 경북회원에게 줄 선물을 안내하였다. 소나무 멸치액젓, 전주 모주, 이성당 빵, 죽염된장, 고스락 유기농 식초 세트 등이 들어있는 커다란 비닐 가방을 경북회장에게 주려고 들어 올리다가 넘어지는 우스꽝스러운 모션(motion)을 취하여 웃음을 자아내었다. 나중에 집에 와서 측정해보니 20kg이나 되었으니 결코 시늉만은 아니었을 수도 있었다. 이어서 경북회장이 전북회원들에게 경주 황남빵 등이 들어있는 선물을 전북회장에게 주었는데 전북의 것보다 훨씬 가벼워서 머쓱한 표정을 지었다.

이제 모든 행사가 끝나고 이별의 순간만 남았다. 한 사람씩 악수를 하며 1박2일 동안 베풀어준 환대에 감사를 표하고 버스에 올랐다. 그리고 열심히 손을 흔들며 뒤를 보고 또 보았다. 그리고 속으로 외쳤다, “우리는 빛지고는 못산데이, 내년에 안동에서 갇아줄까다”

멋들어진 전북 선생님들, 고감사, 고감사, 고~감사!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안에서의 제28회 경·전북의사회 친선 교류행사를 기억하며

1. 반갑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만나는 경·전북의사회 친선 교류행사를 위해 초가을의 시원한 바람과 함께 전주에서 출발하여 드넓은 김제 평야의 들녘을 가로질러 설레는 마음으로 도착한 부안 격포. 푸른 바다와 하얀 백사장은 유난히도 뜨거웠던 지난여름의 치유를 위한 아름다운 여행의 시작이며 반가운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완주군 의사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도의사회 임원들과 함께 의료 현안에 대한 고민을 하고 도의사회 및 군의사회 회원들과 일을 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도 많지만 이 행사에 참여하면서 나름의 치유의 미학을 얻게 되었습니다.

9월의 마지막 주말에 참여한 경·전북 친선행사가 저에게는 경산, 무주 그리고 지난해 경주에 이어 네 번째로 맞이하는 행사로 해가 갈수록 의미 있는 행사로 다가옵니다.

포항, 안동, 대구 등 경북 각지에서 오후 1시 출발하여 저녁 6시 20분 격포에 도착하신 경북의사회 원로 선배님들과 시군 회장님의 건강한 모습과 활기찬 분위기에 인사를 나누는 반가움이 더욱 컸습니다. 이번 행사에 부부동반으로 참여하신 사모님들과 행사를 준비하신 도의사회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격포 채석장이 보이는 바다호텔 앞마당에서 원로 선배님들과 인사를 하다 보니 매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는 정겨움에 한층 더 즐겁고 반가웠습니다.

호텔 대연회장서 시작한 1부 행사에서는 양측 경·전북 의사회장님의 인사 말씀과 참석하신 도의사회 임원 그리고 시군 의사회장님들의 인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었으며 더불어 함께 방문해주신 사모님들의 인사도 있었습니다.

정우석 기획이사의 진행으로 시작한 2부 행사는 전북 의사회원들로 구성된 닥터스 밴드의 연주와 경북의사회 한형원 부회장의 기타와 하모니카 반주로 흥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함께 연주하는 모습에서 음악에 열정이 멋있어서 저도 악기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밤 10시 이후에 삼삼오오 모여 근처 바닷가 횃집에서 이어진 원장님들과의 심야 데이트에서는 1년 만에 만난 반가움으로 양 도간 회원들의 안부를 물으며 마음을 나누는 정겨운 자리였습니다.



이상기 회장
완주군의사회장
봉동고려통증의원

반가움과 설렘으로 시작했던 이번 경·전북 친선 교류행사는 부안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마무리했고 내년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경북 안동에서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어려운 의료 현실이지만 함께 헤쳐가며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분위기를 띄워준 한형원 원장님의 구성진 기타 반주와 흥겨운 노래가 채석강의 넓은 백사장과 푸른 바다에 울려 퍼져 자정을 지나 새벽 네 시까지 이어졌습니다.

2. 부안의 자연에 감탄하다

이튿날 아침, 북엇국과 바지락죽으로 해장한 우리는 새벽부터 내린 비로 비옷과 우산을 챙겨 마실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해변을 따라 펼쳐진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부안 마실길 3코스 적벽강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니 후박나무 군락지가 먼저 보입니다. 이곳이 후박나무 북방한계선이라 여기까지에서 가장 잘 자라고 있으며 내소사 주차장에 있는 일본 후박나무와 다른 점을



문화해설사에게 듣고 수성당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제주 올레길이 유명하지만, 마실길도 그에 못지않게 멋진 길이었습니다. 제주도와는 다른 풍경이지만 해변을 끼고 걸으며 보는 탁 트인 바다와 가을 하늘은 가슴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걷다 보니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코스모스와 메밀밭에서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었고 가을 들판에서 보는 풍경과는 다른 칠산 앞바다의 매력적인 풍경에 빠진 일행들을 모아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수성당이라고 부르는 개양할미 사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격포 사람들은 해마다 정월 초사흘날이면 수성당에서 서해바다 수호신인 '개양할미'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개양할미에게는 딸이 여덟이 있는데 일곱은 칠산 앞바다에 시집보내고, 막내딸만 데리고 수성당을 지킨답니다.

개양할미는 마고할미나 설문대 할망처럼 우리나라의 멋진 여신 중에 한 분이신가 봅니다. 수성당은 부안 앞바다의 위도를 중심으로 멀리 고군산 군도까지를 아우르는 칠산 앞바다에서 나오는 영광굴비와 조기를 잡는 고깃배를 지켜주는 개양할미를 기리는 사당입니다. 수성당을 지나 가을비의 낭만을 느끼면서 버스로 내소사에 도착하였습니다.

내소사의 입구에 있는 할매 당산나무와 대웅전 앞의 할매 당산나무를 보면서 백성들과 함께 풍어와 풍년을 기원하던 스님들의 정성에 감사했고 유명한 내소사 전나무 길은 가을비와 함께 걸으니 더 마음이 차분해지고 가슴 저 밑바닥까지 깨끗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반가움과 설렘으로 시작했던 이번 경·전북 친선 교류행사는 부안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마무리했고 내년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경북 안동에서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어려운 의료 현실이지만 함께 헤쳐가며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따라올 수 없는 차이가 있다!

국내 장비가 해외로 수출된다고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아닙니다.
해외 60여개국에서 이미 품질을 인정받는 루트로닉은 귀원의 평가를 기다립니다.



ADVANTAGE

고출력 다이오드 레이저 - 어드벤처



CLARITY

국내 최초 피부복합 레이저(Alex&Nd:YAG) - 클라리티



SPECTRA GOLD

차세대 고품격 레이저 시술- 골드토닝

대구·경북담당
상담문의

김 진 / 010 4545 8040

E-mail. jwkyw1914@hanmail.net

LUTRONIC®

루트로닉의 대구·경북지역 공식 영업 권한은 창조의료기에만 있습니다.

“최초의 발을 딛다!”
Statin을 포함한 ARB



- One Pill, Statin을 포함한 ARB · 3상 임상을 통한 유효성 및 안전성 입증
- Powerful Irbesartan, Proven Atorvastatin(CV risk management 1차 치료제)

■ 성분 : 150/10(이르베사르탄150mg/아트로바스타틴칼슘10mg), 150/20(이르베사르탄150mg/아트로바스타틴칼슘20mg) ■ 용법용량 : 성인에 한하여 투여하며 투여용량은 이르베사르탄/아트로바스타틴 각 성분의 효과 및 내약성에 근거하여 각 환자에서 개별화되어야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조. ■ 효능효과 : 본태성고혈압, 고혈압을 가진 제2형 당뇨병자의 신질환 치료, 심근경색증, 외출증, 혈관 재생술 및 만성 안정형 협심증 등에 대한 위험성 감소
 ■ 제품문의 : 080-916-9000(소비자상담실)

